

농업·농촌경제동향

2009 가을

특별주제

일본의 정권교체와 신정권의 농정대안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

(김배성 bbskim@krei.re.kr/송성한 song9370@krei.re.kr/장도환 zzangdh@krei.re.kr)

연락처: 3299-4325 / 팩스: 964-5631

목 차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0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13
2. 농가교역조건	16
3.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	18
4. 농림업 취업자	19
5. 농산물 수출입	20

III.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곡물	26
2. 채소	31
3. 과일	50
4. 과채	62
5. 축산	71

특별 주제 1. 일본의 정권교체와 신정권의 농정대안	83
2.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현황과 과제	97

【요약】

I. 국내경제 동향

- 2009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하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 2009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에 대한 소비지출이 높은 가운데 의류와 오락 문화, 의료보건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
- 2009년 3/4분기 총수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 - 자동차,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09년 3/4분기 총수입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
- 2009년 9월 취업자는 23,80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1천명(0.3%) 증가
- 8월 증 소비재판매는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Delta 0.3\%$)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4개월 연속 증가(2.0%)
- 2009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실질로는 $\Delta 4.8\%$ 감소)
- '09년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3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5로 전년 동월대비 2.2% 상승, 전월 대비 0.1% 상승함으로써 7월 이후 3개월째 상승하였으나, 전월 0.4%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됨.
- '09년도 3/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111.5로 전분기 대비 1.1%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1.8로 전년 동월대비 2.6% 하락, 전월 대비 0.1% 상승

- 2009년 2/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 2009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증가율(18.5%)와 같은 18.5%임.
- 9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저금리 기조 예상에 따른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 주요국 주가상승세 지속, 외국인 주식순매수 지속, ADB의 아시아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

II. 농촌경제 동향

- 2009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4로 전년 동기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2.9% 하락
- 2009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9로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0.2% 하락
- 9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10.7로 전년 동월대비 3.2% 상승하였으나, 8월보다는 0.2% 하락
- 2009년 3/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2009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3.0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전분기대비 2.7% 악화됨.
- 2009년 9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1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1.5% 증가. 2009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4% 감소

- 2009년 1~8월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액은 총 2,76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한 1,709백만 달러, 축산물 수출액은 37.9% 감소한 83.2백만 달러 기록
- 2009년 1~8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0,96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농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20.0%, 축산물은 30.2% 감소

I.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09년 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하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증가세로 전환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지출과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민간소비지출과 재화수출도 증가세로 전환
- 2009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에 대한 소비지출이 높은 가운데 의류와 오락 문화, 의료보건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
- 2009년 3/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둔화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 설비투자는 운수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확대되어 전기 대비 8.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
- 2009년 3/4분기 총수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
 - 자동차,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09년 3/4분기 총수입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배성 연구위원(bbskim@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p					2009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5.1	2.2	5.5	4.3	3.1	△3.4	△4.2	△2.2	0.6
최종 소비지출 (민 간)	5.1	1.6	3.9	2.6	2.0	△1.9	△2.0	0.9	1.6
총고정자본형성 (건 설) (설 비)	4.2	△1.7	△0.5	0.6	1.8	△7.3	△8.1	△2.7	△1.4
총 수 출	12.6	5.7	11.0	11.5	9.3	△6.9	△10.6	△3.9	0.9
총 수 입	11.7	3.7	9.7	8.9	9.0	△11.2	△18.2	△13.7	△8.7

주: 2008p, 2009p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09년 3/4분기 농림어업은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전기보다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
- 2009년 3/4분기 건설업은 경기 부진으로 전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

【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p					2009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 산 업	5.1	2.2	5.5	4.3	3.1	△3.4	△4.2	△2.2	0.6
농 립 어 업	4.0	5.5	7.4	4.4	4.2	6.4	1.5	△1.2	2.9
제 조 업	7.2	3.1	9.1	8.4	5.6	△9.1	△13.6	△7.3	0.6
건 설 업	2.6	△2.4	0.8	△1.5	△1.0	△6.3	0.4	2.2	0.6
서 비 스 업	5.1	2.5	4.4	3.3	2.6	△0.1	△0.5	0.4	0.8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09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취업자수는 비슷한 수준임. 실업률(계절조정)은 3.7%로 전년 동기 3.2%보다 0.5%p 증가하였고, 전 분기보다는 0.2%p 감소
- 2009년 9월 취업자는 23,80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1천명(0.3%) 증가
- 9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31천명, 5.5%), 전기·운수·통신·금융업(7천명, 0.2%)에서는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158천명, △2.8%), 제조업, 건설업(△75천명, △4.2%)에서는 감소

【 고용 활동 】

단위: 천명, %

	2007	2008			2009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연간	2/4	3/4	4/4	2/4		3/4
경제활동 인구	24,216	24,347	24,638	24,503	24,394	24,680	24,637	0.5
(경제활동참가율)	61.8	61.5	62.3	61.8	61.3	61.7	61.3	△0.8
취업자	23,433	23,577	23,871	23,752	23,636	23,737	23,751	0.0
· 농림어업	1,723	1,686	1,842	1,824	1,695	1,817	1,799	△1.4
· 광공업	4,031	3,985	4,015	3,957	3,933	3,865	3,815	△3.6
(제조업)	4,014	3,963	3,993	3,934	3,910	3,843	3,791	△3.6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7,679	17,906	18,014	17,970	18,009	18,055	18,138	0.9
(건설업)	1,849	1,812	1,886	1,801	1,811	1,772	1,699	△5.7
실업자	783	769	767	752	757	943	886	17.8
실업률(계절조정)			3.2	3.2	3.2	3.9	3.7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09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 8월 중 소비재판매는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Delta 0.3\%$)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4개월 연속 증가(2.0%)
- 전월대비로 준내구재는 3.3% 증가하였으나, 내구재($\Delta 0.7\%$)와 비내구재($\Delta 1.5\%$)가 감소
 - 전년 동월대비로는 승용차 판매 호조 등 내구재가 5.5%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준내구재, 비내구재도 각각 0.2%, 1.3% 증가함.
 - 업태별로는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7.1%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대형마트 매출은 $\Delta 0.4\%$ 로 감소폭이 다소 축소함.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p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p	8월p
소비재판매	5.1	1.0	2.9	1.4	$\Delta 4.2$	$\Delta 4.9$	1.6	7.5	1.8	2
(내 구 재)1	9.6	1.9	8.7	0.0	$\Delta 9.9$	$\Delta 13.6$	4.0	21.9	0.1	5.5
(준내구재)2	3.9	$\Delta 2.4$	$\Delta 2.1$	0.6	$\Delta 9.9$	$\Delta 0.9$	0.3	$\Delta 1.1$	$\Delta 2.2$	0.2
(비내구재)3	5.2	0.7	0.3	1.2	$\Delta 0.4$	$\Delta 1.4$	1.0	3.5	4.9	1.3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09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1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실질로는 △4.8% 감소)
 - 정상소득은 1.1% 감소하였으나, 비정상소득은 25.3% 감소함.
 - 근로소득(△1.2%) 사업소득(△3.6%), 재산소득(△11.4%)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3.7%)은 증가
- 2009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2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실질로는 △2.9% 감소)
 - 교통(△11.7%), 주류 및 담배(△4.4%), 음식·숙박(△4.2%) 등은 감소한 반면에 보건(22.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6.7%), 오락·문화(5.7%) 등은 증가함.

【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소 득	6.7	6.0	6.0	8.5	6.9	2.7	0.0	△2.1
소비 지출	5.8	6.2	8.2	8.7	4.7	3.3	△3.5	△0.4
(식료품)	3.2	7.2	7.1	10.0	6.8	5.0	△3.0	1.1
(교육)	10.1	15.4	13.2	18.6	17.0	13.3	6.0	1.4

자료: 통계청

4. 물가

- '09년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3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5로 전년 동월대비 2.2% 상승, 전월 대비 0.1% 상승 함으로써 7월 이후 3개월째 상승하였으나, 전월 0.4%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됨.
 - 상품은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전월과 비교하여 축산물은 올랐으나 농산물은 내려 0.4% 하락하였으며, 공업 제품은 석유류 상승 영향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2/4	3/4
총 지 수	104.8 (2.5)	109.7 (4.7)	109.6 (4.8)	111.1 (5.5)	110.8 (4.5)	112.7 (2.8)	113.3 (2.0)
상 품	103.5 (2.0)	109.9 (6.2)	109.9 (6.9)	112.4 (8.3)	110.7 (5.2)	113.6 (3.4)	114.3 (1.7)
농축수산물	101.8 (1.9)	102.3 (0.5)	100.8 (0.7)	103.6 (1.3)	102.8 (△0.1)	110.8 (9.9)	108.7 (4.9)
공업 제품	104.0 (2.0)	112.1 (7.8)	112.5 (8.6)	114.9 (10.2)	113.0 (6.7)	114.4 (1.7)	116 (1.0)
서 비 스	105.7 (2.9)	109.6 (3.7)	109.5 (3.6)	110.3 (4.0)	110.8 (4.0)	112.0 (2.3)	112.6 (2.1)
집 세	102.0 (1.8)	104.5 (2.3)	104.2 (2.2)	104.9 (2.4)	105.5 (2.5)	105.9 (1.6)	106.3 (1.3)
공공서비스	106.7 (3.1)	109.3 (2.4)	109.2 (2.7)	109.4 (2.1)	110.0 (1.9)	111.0 (1.6)	111.9 (2.3)
개인서비스	106.2 (3.1)	111.2 (4.7)	111.1 (4.4)	112.2 (5.2)	112.7 (5.4)	114.3 (2.9)	114.7 (2.2)

주: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09년도 3/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111.5로 전분기 대비 1.1%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2% 하락
-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1.8로 전년 동월대비 2.6% 하락, 전월대비 0.1% 상승
 - 산지 출하 증가 등으로 채소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 가격이 내려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4.1% 하락, 공산품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월중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0.5%에서 0.1%로 둔화됨.
- 9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05.0으로 전년 동월대비 6.1% 상승, 전월대비 4.1% 하락
 - 채소류는 올랐으나 수산식품, 축산물, 과일 및 곡물은 하락함.
- 9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12.5로 전년 동월대비 4.9% 하락, 전월대비 0.4% 상승
 -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2/4	3/4
총 지 수	100.9 (1.4)	111.1 (8.6)	111.4 (9.0)	115.2 (12.1)	112.0 (8.0)	110.3 (△1.0)	111.5 (△3.2)
농림수산물	97.5 (2.8)	101.3 (1.1)	99.4 (0.0)	100.3 (0.5)	103.1 (4.2)	114.3 (15.0)	109.1 (8.8)
광 산 품	97.8 (7.3)	115.1 (9.7)	115.4 (12.3)	115.5 (10.4)	119.5 (8.2)	123.3 (6.8)	125.2 (8.4)
공 산 품	100.2 (0.8)	113.0 (11.9)	113.8 (12.7)	118.9 (17.3)	114.0 (11.2)	110.3 (△3.1)	111.9 (△5.9)
전력/수도/가스	107.4 (3.5)	115.9 (4.2)	114.7 (4.7)	115.3 (3.4)	119.2 (3.7)	120.0 (4.6)	126.9 (10.1)
서 비 스	102.2 (2.3)	107.2 (2.5)	107.0 (2.5)	108.6 (3.2)	107.6 (2.1)	107.9 (0.8)	108.5 (△0.1)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 '09년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08.5로 전분기 대비 0.05% 하락,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
- 9월 수출물가지수는 107.3으로 전월대비 1.8% 하락, 전년 동월대비 7.2% 하락
 - 환율 하락 및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영향으로 4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됨.
-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1.0으로 전월대비 6.7% 하락, 전년 동월대비 0.6% 상승
 - 농림수산물은 참치, 오징어, 배가 감소했고, 김, 조개가 전월대비 상승함.

【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2/4	3/4
농림수산물	96.6 (5.4)	121.5 (25.8)	118.8 (27.7)	127.3 (27.4)	131.9 (29.9)	122.8 (3.4)	137.6 (8.2)
공 산 품	89.8 (△2.2)	109.4 (21.8)	108.6 (21.6)	112.7 (24.8)	119.9 (31.6)	108.5 (△0.1)	108.4 (△3.8)
원 자 재	94.0 (△0.4)	125.7 (33.8)	122.9 (38.5)	132.9 (36.8)	139.2 (39.9)	129.9 (5.7)	141.8 (6.7)
자 본 재	91.0 (△1.1)	109.2 (20.0)	103.5 (14.9)	106.3 (16.4)	129.9 (40.7)	122.1 (18.0)	118.8 (11.7)
소 비 재	80.5 (△6.3)	93.5 (16.1)	90.2 (12.8)	91.8 (14.5)	107.4 (32.9)	99.5 (10.4)	96.4 (5.0)
총 지 수	89.8 (△2.1)	109.5 (21.9)	108.7 (21.6)	112.7 (24.8)	120.0 (31.7)	108.6 (△0.1)	108.5 (△3.7)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09년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37.6으로 전분기 대비 3.0% 상승,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
- 9월 수입물가지수는 136.7로 전월대비 1.9% 하락, 전년 동월대비 10.8% 하락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으로도 전월대비 0.9% 하락, 전년 동월대비 18.8% 하락함.
 -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크게 떨어진 원자재를 중심으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됨.
-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51.4로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 동월대비 9.4% 하락
 - 대두, 옥수수, 밀, 냉장어류, 원면 등이 하락하였으며 쇠고기, 천연 고무 등이 상승함.

【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2/4	3/4	4/4	2/4	3/4
농림수산물	117.7 (17.2)	160.5 (36.4)	159.8 (41.9)	161.3 (38.4)	172.2 (32.5)	156.7 (△1.9)	153.2 (△5.0)
공 산 품	98.4 (3.3)	125.3 (27.3)	123.0 (24.7)	128.1 (31.1)	141.2 (40.9)	126.2 (2.6)	127.8 (△0.2)
원 자 재	123.9 (7.0)	191.5 (54.6)	211.5 (78.2)	219.3 (74.1)	172.2 (20.3)	152.2 (△28.1)	162.8 (△25.8)
자 본 재	88.0 (△2.6)	108.3 (23.1)	100.5 (15.5)	103.3 (17.7)	135.2 (52.0)	128.5 (27.8)	125.6 (21.6)
소 비 재	96.7 (1.2)	118.3 (22.3)	113.0 (17.7)	117.0 (21.7)	137.3 (39.4)	130.0 (15.0)	128.6 (9.9)
총 지 수	105.5 (4.5)	143.7 (36.2)	147.6 (41.6)	153.4 (45.3)	149.8 (33.6)	133.6 (△9.5)	137.6 (△10.3)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09년 2/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
- 2009년 8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증가율(18.5%)와 같은 18.5%임.
- 2009년 8월중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10.0%로, 전월 증가율(9.7%)보다 다소 상승
 - 2009년 7월부터 M2에 포함된 증권사 CMA를 제외할 경우,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9.5%로 전월 증가율(9.6%)과 비슷한 수준임.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M1 ¹	△5.2	△1.8	△12.4	△0.1	2.1	5.0	10.8	17.6
M2 ²	11.2	14.3	13.3	15.3	14.7	13.8	11.5	10.1
Lf ³	10.2	11.9	11.6	12.8	12.1	11.2	8.8	7.3
본원통화	16.5	7.7	4.2	6.3	8.1	12.1	26.5	18.7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09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으로 국고채(3년)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저가매수자금 및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

- 회사채(3년)금리는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 완화로 하락하여 8월말 수준을 하회

【 금 리 동 향 】

단위: %

	2008	2009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콜 금 리	4.05	2.43	2.06	1.77	1.80	1.91	1.93	1.93	1.98	1.99
CD유통수익률	5.44	3.22	2.70	2.45	2.42	2.41	2.41	2.41	2.48	2.64
회 사 채 ¹	8.29	7.34	7.07	6.14	5.68	5.16	5.21	5.46	5.74	5.58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9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저금리 기조 예상에 따른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 주요국 주가상승세 지속, 외국인 주식순매수 지속, ADB의 아시아지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
 - 9월말 종가는 전월말 종가(1,250원)대비 72원 하락한 1,178원으로 '08년 9월 26일 (1,160.5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
- 9월말 원/엔 환율은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원화 및 엔화가 동반 절상되어, 전월말 종가인 1,347원에서 35원 하락한 1,312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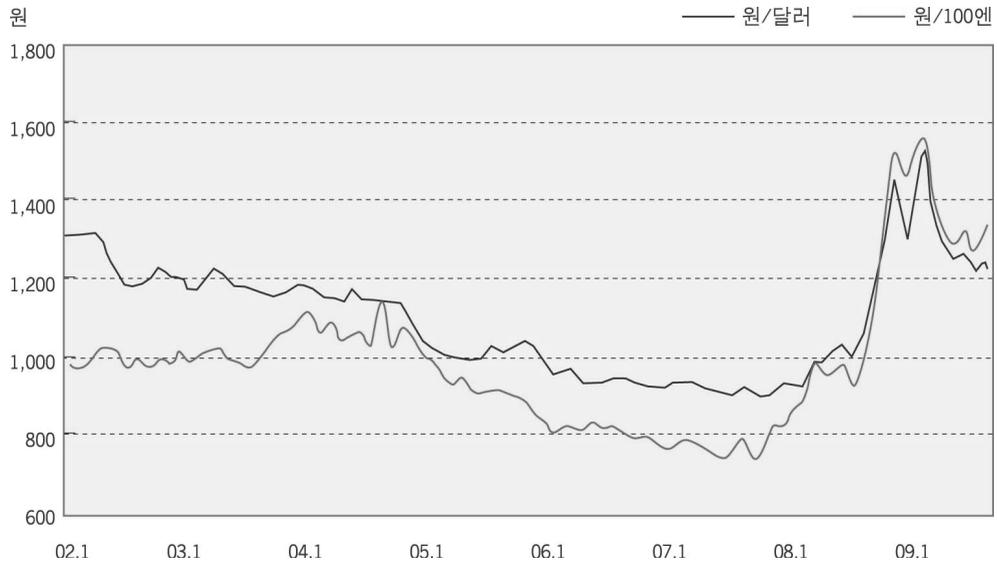
【 원화 환율 동향 】

단위: 원(기말 기준)

	2008		2009								
	3/4	4/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03	1,357	1,380	1,533	1,370	1,288	1,253	1,272	1,230	1,250	1,178
원/100엔	1,031	1,441	1,544	1,569	1,394	1,320	1,301	1,331	1,285	1,347	1,312

자료: 외환은행 고시환율

【 원화 환율 추세 】



II. 농촌경제 동향 2)

1. 농촌물가

- 2009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4로 전년 동기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2.9% 하락
 - 곡물은 감자, 고구마 등이 하락하면서 전분기 대비 5.9% 하락
 - 청과물 중 열무, 부추, 양파, 오이 등의 하락으로 채소류는 전분기보다 2.6%, 복숭아, 포도 등 과일류가 전분기대비 2.4% 하락

【 농가판매가격지수(2005년=100) 】

	2007	2008		2009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 수	101.2	99.4	102.1	100.2	103.4	100.4	0.2	△2.9
곡 물	100.2	107.8	111.7	105.4	104.8	98.6	△6.5	△5.9
미 곡	98.5	104.4	103.7	105.0	102.3	97.0	△7.6	△5.2
맥 류	98.4	95.0	95.0	95.0	89.1	89.1	△6.2	0.0
잡 곡	106.5	117.5	116.6	119.6	113.3	115.3	△3.6	1.8
두 류	83.8	112.9	129.8	120.7	106.3	105.6	△12.5	△0.7
서 류	129.0	142.3	187.7	99.5	133.7	109.3	9.8	△18.2
청 과 물	105.7	92.3	95.3	98.0	99.8	97.2	△0.8	△2.6
채 소	109.1	96.9	90.8	96.3	99.0	96.6	0.3	△2.4
과 실	98.9	83.1	104.3	101.4	101.2	98.6	△2.8	△2.6
축 산 물	93.3	93.0	91.8	91.4	100.9	106.2	16.2	5.3
가 축	91.9	87.0	87.8	85.0	93.8	102.2	20.2	9.0
유 란	96.3	105.6	100.0	104.6	115.8	114.4	9.4	△1.2
기 타	112.2	115.3	124.5	116.6	122.6	104.3	△10.5	△14.9
특 작	96.0	95.0	96.3	94.8	91.0	91.7	△3.3	0.8
화 훼	148.9	162.3	191.4	167.1	198.3	131.9	△21.1	△33.5
부 산 물	121.6	119.1	121.6	121.6	112.4	116.4	△4.3	3.6

주: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배성 연구위원(bbskim@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승준호 연구원(jhseu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 2009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9로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 0.2% 하락
 - 가계용품은 식료품, 가구집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류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0.5% 상승함.
 - 농업용품은 종자, 영농광열비, 가축 등은 상승하였으나, 비료, 농약, 농기구, 사료, 영농자재 등의 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1.9% 하락
 - 농촌임료금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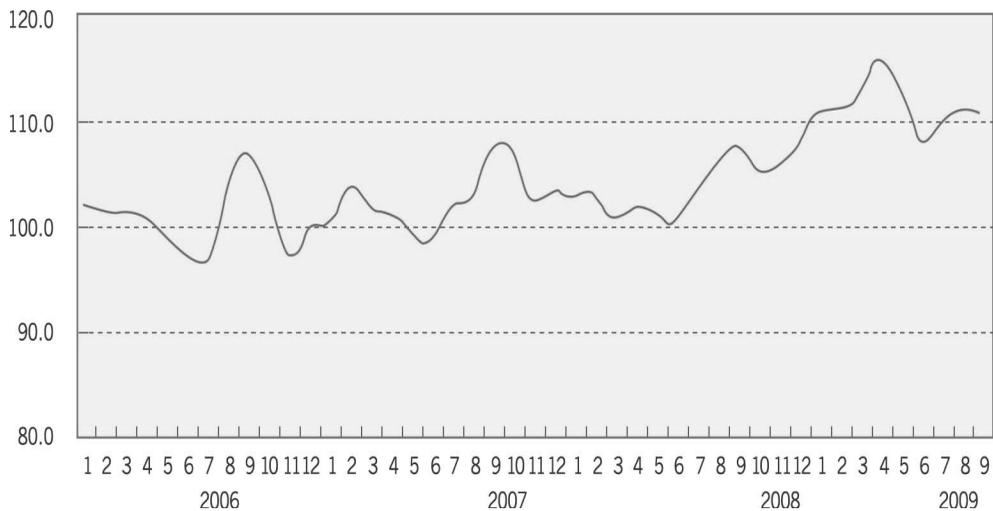
【 농가구입가격지수(2005년=100) 】

	2007	2008		2009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비	전분기 대비
총지수	104.8	115.3	114.2	119.0	121.2	120.9	1.6	△0.2
가계용품	104.9	110.7	111.1	112.7	114.1	114.7	1.8	0.5
식료품	103.3	108.9	108.0	110.9	116.8	116.2	4.8	△0.5
피복	105.2	107.6	107.3	108.1	111.6	112.8	4.3	1.1
가구집기	88.8	90.0	89.3	90.3	93.3	92.6	2.5	△0.8
광열수도	108.1	122.1	126.7	129.3	111.6	114.6	△11.4	2.7
보건의료	104.2	106.4	106.3	106.7	108.9	109.3	2.4	0.4
교육	112.8	119.9	120.8	120.9	123.8	123.9	2.5	0.1
교양오락	103.0	105.7	105.8	105.9	108.9	110.2	4.1	1.2
교통통신	104.9	109.5	111.2	112.3	107.7	110.1	△2.0	2.2
기타잡비	107.3	118.2	116.7	118.9	128.1	128.7	8.2	0.5
농업용품	104.8	128.5	123.5	136.6	140.8	138.1	1.1	△1.9
종자	96.6	96.9	96.7	97.1	104.1	106.6	9.8	2.4
비료	121.0	207.5	158.3	263.9	246.1	236.0	△10.6	△4.1
농약	99.9	104.2	104.2	104.2	122.4	122.3	17.4	△0.1
농기구	106.5	114.1	112.9	115.1	119.2	119.0	3.4	△0.2
영농광열비	112.7	148.7	177.8	162.6	108.6	114.7	△29.5	5.6
가축	86.6	69.3	73.6	63.2	74.4	82.0	29.7	10.2
사료	112.1	155.5	145.8	164.2	186.8	175.2	6.7	△6.2
영농자재	97.6	123.3	121.6	127.7	118.4	115.6	△9.5	△2.4
농촌임료금	103.6	111.7	110.3	114.6	117.1	117.1	2.2	0.0
농업노동임금	103.1	113.1	112.6	116.4	119.4	120.5	3.5	0.9
도정료	100.5	107.3	107.1	110.2	112.7	111.6	1.3	△1.0
농기계임차료	104.6	110.3	107.6	112.7	114.7	113.5	0.7	△1.0

주: 통계청

- 9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³⁾는 110.7로 전년 동월대비 3.2% 상승하였으나, 8월보다는 0.2% 하락
 - 전월보다 농산물체감물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상추, 풋고추, 호박 등 채소류와 포도 등 과일류의 가격이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 2009년 3/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⁴⁾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여 강세를 나타냈으며, 닭고기는 전분기보다 2.4% 하락
 - 채소류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하락함. 양파는 2009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크게 나타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4)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9개 품목만으로 구성된 물가지수임.

【 장바구니 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2007	2008		2009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쌀	96.3	101.3	99.9	101.9	103.2	100.7	△1.2	△2.4
쇠고기 (국산)	106.3	106.2	104.7	105.8	110.7	119.1	12.6	7.6
돼지고기	96.8	113.4	117.3	128.1	127.0	129.1	0.8	1.7
닭고기	90.1	109.8	98.8	81.7	134.2	131.0	11.4	△2.4
사과	89.9	78.2	81.1	102.1	81.2	81.9	0.2	0.9
배추	115.2	89.6	85.3	116.6	139.0	117.8	15.4	△15.3
양파	108	113.3	107.9	90.7	141.8	102.2	△12.3	△27.9
토마토	105.7	99.2	90.4	90.4	103.2	89.0	△1.3	△13.8
마늘	114.1	107.8	109.7	107.1	104.8	102.1	△4.7	△2.6

자료: 통계청

2. 농가교역조건

- 2009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3.0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전분기대비 2.7% 악화됨.
 - 농가구입가격이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승하면서 농가교역조건은 전분기대비 악화

【 농가교역조건 변화 】

	2007	2008		2009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1.2	99.4	102.1	100.2	103.4	100.4	0.2	△2.9
농가구입가격지수(B)	104.8	115.3	114.2	119.0	121.2	120.9	1.6	△0.2
농가교역조건(A/B*100)	96.6	86.2	89.4	84.2	85.3	83.0	△1.4	△2.7

자료: 통계청

- 2009년 3/4분기 쌀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전분기보다는 4.7% 악화
- 2009년 3/4분기 마늘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전분기 1.9%, 양파는 23.7% 악화
- 2009년 3/4분기 토마토의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17.3%, 사과는 1.6% 악화
- 2009년 3/4분기 소·돼지 축산농가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농가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개선

【 품목별 패리티지수 】

	2007	2008		2009		증감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쌀	92.4	77.8	83.9	70.7	70.1	66.8	△5.5	△4.7
마늘	124.6	85.2	86.2	87.7	106.8	104.8	19.5	△1.9
양파	65.6	109.7	111.5	114.2	116.0	88.5	△22.5	△23.7
토마토	98.1	66.8	64.5	57.1	75.5	62.5	9.4	△17.3
사과	70.7	74.2	77.0	89.9	89.6	88.1	△2.0	△1.6
소	102.6	84.3	84.8	78.8	73.1	81.3	3.3	11.2
돼지	85.3	89.2	101.8	99.1	88.1	94.0	△5.1	6.8

주: 1) 품목별 구입가격지수는 매분기 발표되는 비목별 농가구입가격지수에 각 품목별 생산비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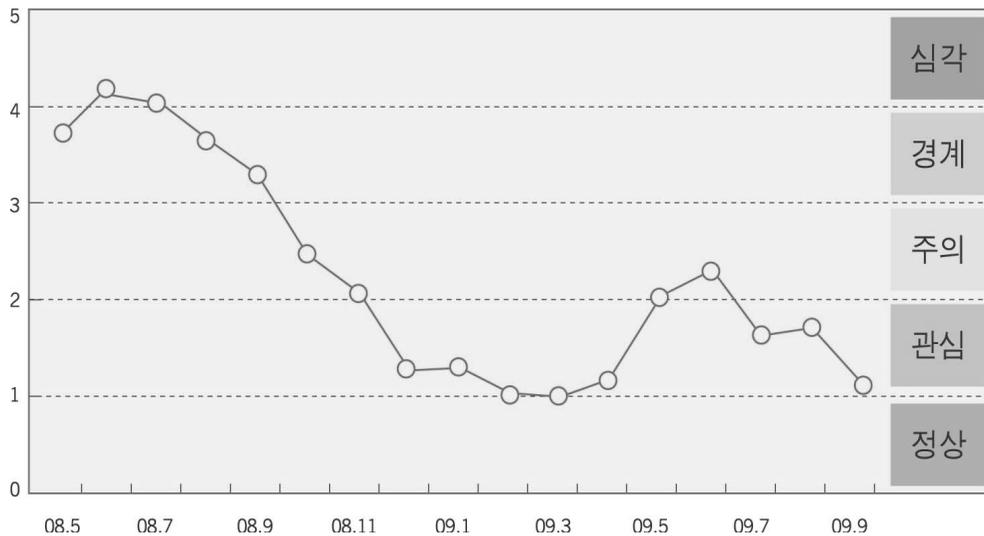
2) 품목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은 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100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⁵⁾

- 09. 9월말 기준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1.06)는 전월과 동일한 관심 수준을 유지 하면서 하락
 - 조기경보지수: (09.1)1.27→(2)1.00→(3)1.00→(4)1.11→(5)2.00→(6)2.28→(7)1.58→(8)1.69→(9)1.06

【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 】



- 국제곡물 선물가격과 국제원유 선물가격이 하락하고, 밀, 대두 재고율이 상승하였 으며, 환율관련 변수는 7개월 연속 안정신호를 보임에 따라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는 전월보다 0.53 하락함.

5)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곡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위기 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선행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국제곡물 선물가격, 곡물 재고율, 국제원유 선물가격, 곡물 순매수포지션)을 설정 한 후, 신호접근법(Signal Approach)을 이용하여 산출된 N/S비율(Noise-Signal Ratio)을 가중치로 사용, 선행변수들을 취합하여 만든 지수임.

- 곡물 선물가격 지표는 밀, 옥수수, 대두가 각각 전월대비 7.1%, 1.5%, 13.9% 하락하여 안정신호를 보임.
 - 국제원유 선물가격은 전월대비 2.3% 하락하여 안정신호로 전환
 - 곡물 재고율 지표는 밀, 대두 재고율의 경우 각각 전월대비 1.5%, 0.3% 증가 하였으나, 옥수수 재고율은 1.8% 감소
 - 환율관련 지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월대비 5.2% 상승,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3.6% 증가하여 안정신호를 유지
- 2009년 9월말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안정 신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상승세로 반전될 상황에 대비하여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4. 농림업 취업자

- 2009년 9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1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 1.5% 증가. 2009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 하였으나, 3/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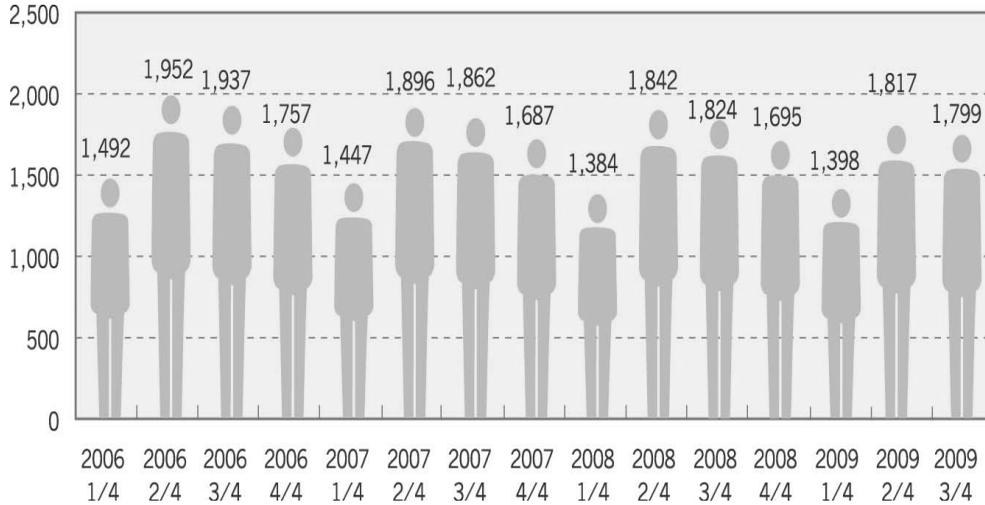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2008			2009			증감률(%)		
	2/4분기	3/4분기	9월	2/4분기	3/4분기	9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경제활동 인구	24,638	24,503	24,456	24,680	24,637	24,630	0.7	0.4	
취업자	전산업	23,871	23,752	23,734	23,737	23,751	23,805	0.3	0.8
	농림어업	1,842	1,824	1,833	1,817	1,799	1,815	△1.0	1.5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5. 농산물 수출입

5.1. 수출동향

- 2009년 1~8월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은 총 2,76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
-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홍삼, 고추, 팽이버섯, 백합, 장미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한 1,709백만 달러 기록
- 축산물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조제분유, 우유 가공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7.9% 감소
- 임산물은 원목, 합판 등 목재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

【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08. 1~8	2009. 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2,954.5	1,838.3	1,856.7	1.0
농산물	2,621.0	1,639.0	1,709.1	4.3
축산물	215.1	133.8	83.2	△37.9
임산물	118.4	65.5	64.5	△1.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로는 화훼, 과실은 감소하였으나, 채소류, 김치, 인삼, 돼지고기, 가금육 등은 증가

【 주요 품목의 수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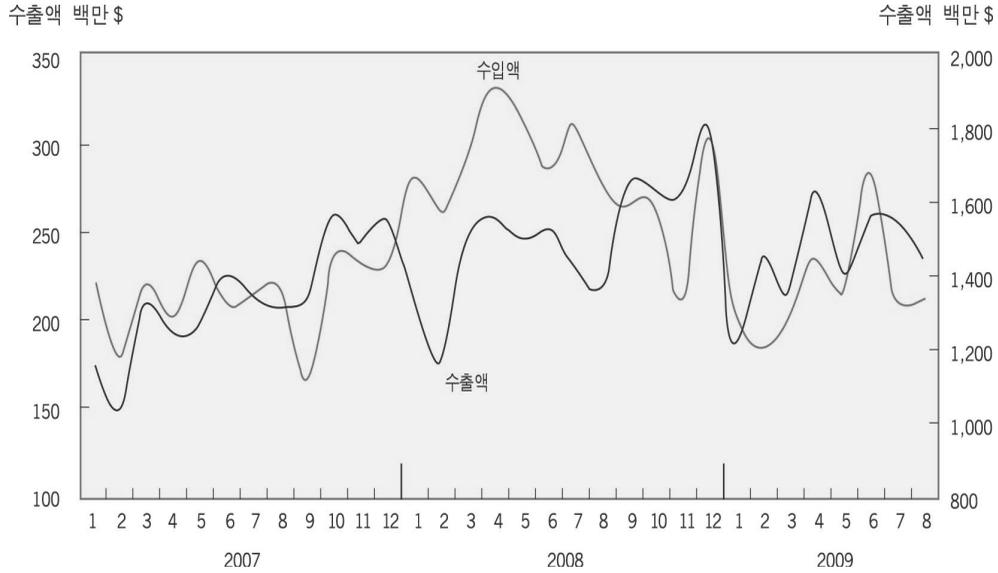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7	2008	2008 1~8월	2009 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21.1	148.6	94.3	102.5	8.6
김 치	75.3	85.3	54.4	56.2	3.3
인 삼	92.1	97.2	54.9	60.5	10.2
화 훼	58.1	76.2	42.4	35.2	△17.0
과 실	144.9	154.9	80.0	64.6	△19.2
돼지고기	25.6	17.7	5.6	6.9	23.5
가 금 육	9.0	12.9	7.1	9.8	37.3
산림부산물	71.0	59.0	25.0	25.3	1.1
가공식품	1,877.5	2,279.5	1,463.7	1,476.7	0.9
합 계	2,474.6	2,931.3	1,827.4	1,837.7	0.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2009년 8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월보다 8%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0.2% 감소

【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 】



5.2. 수입동향

- 2009년 1~8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0,96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농산물은 옥수수, 밀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0.0% 감소.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0.2% 감소

【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08. 1~8월	2009. 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20,120.4	13,811.7	10,961.9	△20.6
농 산 물	13,904.6	9,529.4	7,620.5	△20.0
축 산 물	3,352.2	2,288.0	1,597.3	△30.2
임 산 물	2,863.6	1,994.2	1,744.1	△12.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품목의 1~8월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7.7%, 닭고기 27.9%, 밀은 26.7%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품목의 수입액 】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6	2007	2008	2008.1~8	2009.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수수	1,271	1,834	2,830	2,001	1,047	△47.7
밀	669	856	1,314	840	615	△26.7
대두	332	430	813	537	408	△24.0
쇠고기	876	1,037	1,051	667	521	△21.8
돼지고기	778	904	876	629	491	△22.0
닭고기	118	120	154	109	79	△27.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9년 1~8월 열대과일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바나나의 수입이 114백만 달러로 수입액이 가장 컸으며, 오렌지, 포도, 키위 순으로 나타남.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8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6.7% 감소

【 열대과일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6	2007	2008	2008.1~8	2009.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23	179	170	149	103	△31.2
키위	63	70	57	43	43	△1.1
포도	33	86	110	93	77	△17.2
파인애플	43	68	63	47	36	△22.5
바나나	145	171	154	114	114	0.3
레몬	8	11	11	8	6	△32.3
합계	415	585	565	454	379	△16.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3. 국가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9년 1~8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1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3% 감소
- 가공식품 및 농산물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화훼류 58.6%, 인삼류 25.0% 채소류 7.7% 등이 큰 폭으로 감소

【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8. 1~8		2009. 1~8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5.8	213.9	144.6	213.3	15.0	△0.3
농 산 물	115.4	194.2	133.1	192.7	15.4	△0.8
축 산 물	1.9	7.9	2.9	10.1	56.7	28.7
임 산 물	8.5	11.7	8.6	10.4	1.4	△11.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7	2008	2008 1~8월	2009 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당류	54.4	58.1	28.9	31.9	10.3
면류	30.1	36.0	24.9	24.5	△1.7
과자류	38.6	33.9	23.2	22.4	△3.5
화훼류	23.3	23.4	13.6	5.6	△58.6
인삼류	3.6	6.8	4.8	3.6	△25.0
채소류	5.5	6.9	3.9	3.6	△7.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8년 1~8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24.7%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8% 감소함. 특히, 축산물과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

【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8. 1~8		2009. 1~8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040	1,890	3,791	1,818	24.7	△3.8
농 산 물	2,563	1,408	2,041	1,140	△20.4	△19.0
축 산 물	28	65	11	28	△60.3	△57.7
임 산 물	449	417	1,738	650	287.5	55.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동향

- 2009년 1~8월 대일 농림축산물 수출은 495.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
 - 채소류 중 파프리카, 버섯, 가지 등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김치, 고추, 양배추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
 - 화훼류는 백합,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1.3% 증가
 - 과실류는 사과, 복숭아, 감귤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8.4% 감소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8. 1~8	2009. 1~8	전년동기비 증감률(%)
농림축산물	646.2	751.8	452.6	495.5	9.5
채소류	138.4	154.8	101.0	104.0	3.0
주 류	119.1	146.1	86.5	103.6	19.8
과자류	59.9	78.5	50.8	41.8	△17.8
화훼류	31.2	39.7	17.0	25.7	51.3
인삼류	28.7	26.8	13.8	14.9	7.9
과실류	28.3	24.9	14.6	9.0	△38.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Ⅲ.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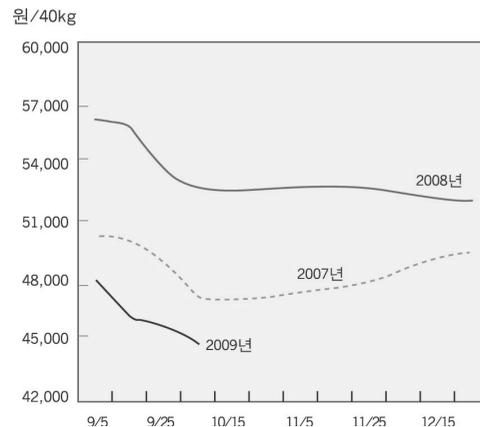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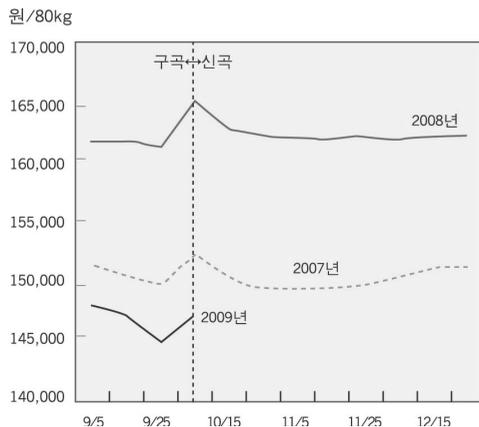
1. 곡물⁶⁾

1.1. 쌀

- 10월 5일 산지 쌀 가격은 14만 7,116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 하락 하였음. 산지유통업체들이 2008년산 구곡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쌀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산지 쌀 가격은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산지 벼 가격은 9월초에 4만 8,123원/40kg에 형성되다가 10월 5일 4만 4,979원 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대비 14.3% 낮은 수준임. 2008년산 구곡이 남아 있고 조생종 품위가 좋지 않아 수요가 줄었기 때문임. 정부와 농협의 벼 매입자금 확대 등으로 매입수요가 늘어 산지 벼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 추이 】

【 전국 평균 산지 벼 가격 추이 】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최익창 연구원(cic@krei.re.kr), 승준호 연구원(jhseu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 전국 쌀 평균 가격 】

단위: 원/80kg

		산지 정곡가격	산지 조곡가격
2008양곡연도	8월	162,029	-
	9월	161,484	55,185
	10월 5일	165,108	52,491
2009양곡연도	8월	151,313	-
	9월	146,643	46,743
	10월 5일	147,116	44,979
등락률(%)	전월대비	0.3	-3.8
(10월 5일기준)	전년 동기대비	-10.9	-14.3

주: 2009양곡연도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쌀이 소비 유통되는 기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9월 산지유통업체의 햅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32.8% 감소하였고,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12.0% 낮은 3만 8,352원/20kg 수준을 보임. 농협RPC의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2.1% 낮은 3만 9,760원/20kg, 민간RPC는 전년 동기대비 12.6% 낮은 3만 5,419원/20kg임.
- 산지유통업체들의 9월 쌀 판매 비중이 2008년에는 구곡 62%, 햅쌀 38%였던데 비해, 2009년에는 구곡 78%, 햅쌀 22%로 햅쌀 판매비중이 크게 감소함.
- 2008년에는 구곡 재고가 많지 않고 조생종 품질이 전년보다 좋아 햅쌀로 조기 전환한 산지유통업체들이 많았지만, 2009년에는 2008년산 재고가 어느 정도 있고 2009년산 조생종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산지유통업체들이 구곡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임.

【 산지유통업체 쌀 판매가격(2009년 9월) 】

단위: 원/정곡20kg, %

	구곡	햅쌀
농협RPC	37,772 (-8.5)	39,760 (-12.1)
민간RPC	34,941 (-10.8)	35,419 (-12.6)
전체	36,931 (-9.1)	38,352 (-12.0)

주: ()는 전년 동기대비 등락률.
 자료: 2009.10.1~10.9 농업관측정보센터 산지유통업체 대상 팩스 및 전화조사 결과.

【 산지유통업체 9월말 재고 비중 】

단위: %

	2008년 9월말		2009년 9월말	
	구곡	햅쌀	구곡	햅쌀
농협RPC	16.2	83.8	45.8	54.2
비RPC농협	36.4	63.6	85.7	14.3
민간RPC	21.5	78.5	46.3	53.7
전체	16.9	83.1	45.9	54.1

-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산지유통업체들의 재고 중 햅쌀의 비중이 54.1%로 전년 동기(83.1%)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별로는 비RPC농협의 구곡과 햅쌀의 재고 비중이 각각 85.7%, 14.3%로 나타나 전년 36.4%, 63.6%에 비해 햅쌀 비중이 크게 감소함. 또한 농협RPC와 민간RPC농협의 햅쌀 재고 비중도 54% 내외로 전년(각각 83.8%, 78.5%)보다 비중이 줄어듦.
- 특히 비RPC농협의 9월 햅쌀 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08년산 구곡 재고가 전년보다 많이 남아 있어 햅쌀 매입을 꺼려하였기 때문임.
- 농업관측정보센터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업체별로 살펴보면, 농협RPC와 비RPC농협의 매입물량은 전년보다 각각 3.5%, 8.3% 증가, 민간RPC도 전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지유통업체 2009년 수확기 벼 매입예상물량 전년대비 증감률 】

단위: %

	계약물량	비계약물량	합계
농협RPC	9.4	-5.5	3.5
비RPC농협	5.7	9.3	8.3
소계	8.6	2.5	5.4
민간RPC	8.8	-1.4	4.0
전체	8.6	1.9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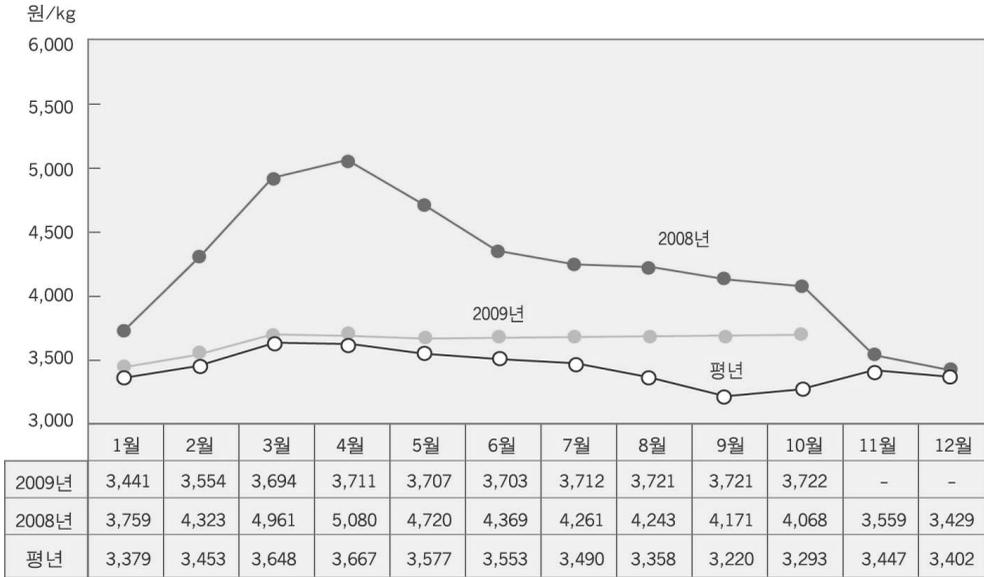
자료: 2009.10.1~10.9 농업관측정보센터 산지유통업체 대상 팩스 및 전화조사 결과.

- 이는 정부가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자금을 대한 이자를 낮추는 등 매입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임. 또한 농협은 벼 매입자금을 전년보다 1천억 늘린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농협의 수확기 벼 매입예상물량이 전월 조사치(1.4%)보다 3.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통계청이 10월 6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9년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3% 감소한 468만 2천 톤으로 집계됨. 이는 평년(457만 톤)보다 11만 7천 톤 (2.6%) 증가한 수준임.
-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2%(1만 1천ha) 감소한 92만 4천ha로 2000년대 평균 감소율 1.7%보다 둔화되었고, 논벼 단수가 508kg/10a로 전년(520kg/10a)대비 2.3% 감소하여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6만 1천 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3% 적은 468만 2천 톤으로 예상되어 금년 수확기(11~12월) 쌀 가격은 14만 7천원~15만원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에 비해 7.2~9.1% 하락한 것이지만, 2007년산과 비슷하거나 2.1% 하락한 수준임.

1.2. 대두

- 콩 도매가격은 2009년 7월 상승세로 전환되어 10월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함. 10월 27일 백태 상품 도매가격은 3,700원/kg으로 전년대비 9.0% 낮으나 평년대비 12.4% 높은 수준임. 중품 도매가격도 3,429원/kg으로 전년대비 8.9% 낮지만, 평년보다는 13.8% 높은 수준임.
- 농업관측정보센터 콩 표본 농가 659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 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7만 3,995ha로 추정됨. 콩 재배면적 감소 이유는 2008년산 수확기 벼 가격 인상과 논콩차등수매제 폐지로 인한 논콩 면적 감소와 연작피해에 따른 돌려짓기로 파악됨.

【 콩 도매가격 동향(국산 백태, 상품) 】



주: 평년은 2002년 11월~2007년 10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2009 양곡연도 10월 가격은 27일까지 일별 평균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9년 8월까지의 콩 예상 작황을 조사한 결과 평년대비 “좋음” 25.2%, “비슷” 43.2%, “나쁨” 31.6%로 나타남.
- 2009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7% 감소하고, 단수를 162~171kg/10a로 가정하면, 금년 콩 생산량은 11만 9천~12만 6천 톤으로 추정됨.

【 2009년산 콩 생산량 전망 】

	2008년산(A)	2009년산(B)	B/A, %
면적(ha)	75,242	73,995	-1.7
단수(kg/10a)	176	162~171	-8.6~-2.9
생산량(톤)	132,674	119,872~126,531	-10.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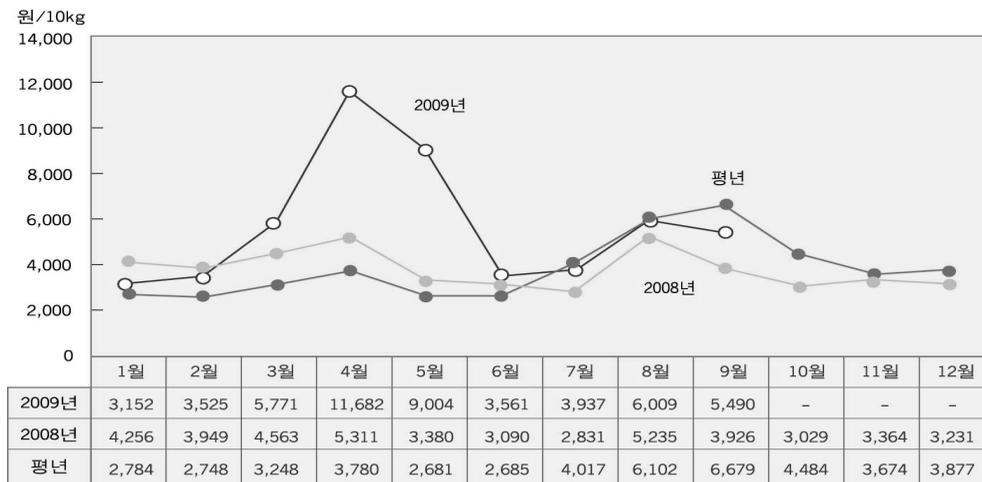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2. 채소기

2.1. 배추

- 배추 3/4분기 상품 1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5,150원(중품 3,63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낮지만, 작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임.
- 작년 동기보다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고랭지배추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김치 수입량도 원산지 표시제와 위안화 강세로 작년 동기보다 29% 감소하였기 때문임.

【 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배추 10월 전체 공급량은 산지 출하량과 김치 수입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0%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준고랭지 2기작 배추와 가을배추의 출하면적이 감소하였고, 단수도 9%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치 수입량도 중국 배추 재배 면적 감소와 원산지표시제로 작년 동월보다 17% 감소하기 때문임.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신용광 부연구위원(ykshin22@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김재환(jhkim74@krei.re.kr), 윤종열(fsyoony76@krei.re.kr), 윤형현(aruki00@krei.re.kr), 한승용(han0309@krei.re.kr), 최선웅(csung@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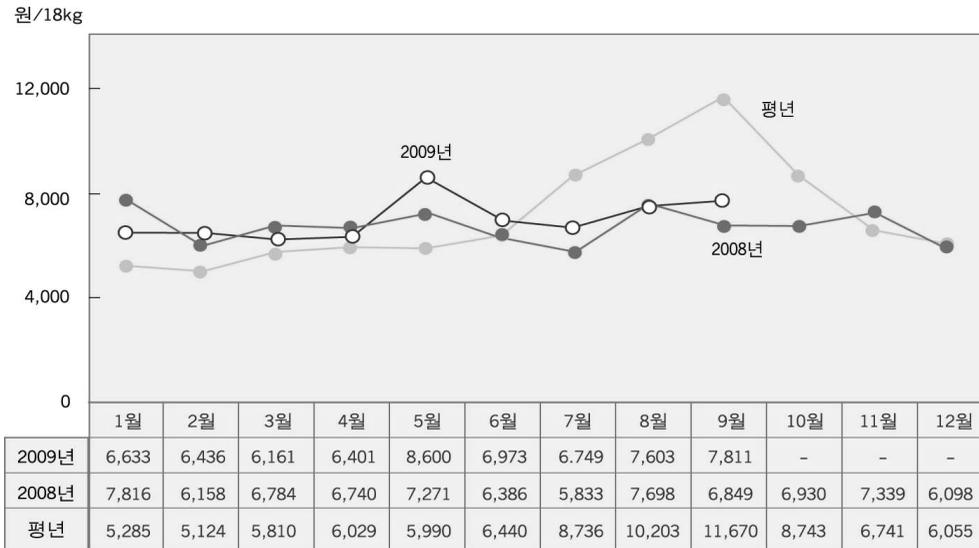
- 배추 10월 상품 10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국내 공급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6% 높지만, 평년 동월보다 22% 낮은 3,500원(중품 2,500원)으로 전망됨.
-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5%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5% 증가하여 김장철인 11~12월 배추가격은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남 지역 월동배추 주산지에서 출하기 가격이 크게 높았던 양파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 금년 김장비용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
 -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 김장철인 11~12월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낮겠으나, 건고추, 쪽파 등 양념채소류 가격은 높아 김장비용은 평년보다 11% 상승한 14만 5천 원(소매가격, 4인 가족 기준) 전망
 - 금년 시판 김치의 안전성 문제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율 작년보다 5% 증가

2.2. 무

- 무 3/4분기 상품 18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7,390원(중품 5,98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28% 낮지만, 작년 동기보다 9% 높은 수준임.
- 이는 고랭지무 재배면적이 작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무 10월 산지 출하량은 준고랭지 2기작 무와 가을무의 출하 면적이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5% 줄어들 전망이다.
- 무 10월 상품 18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10% 높지만, 평년 동월보다 14% 낮은 7,500원(중품 6,000원)으로 전망됨.

【 무 도매가격 (상품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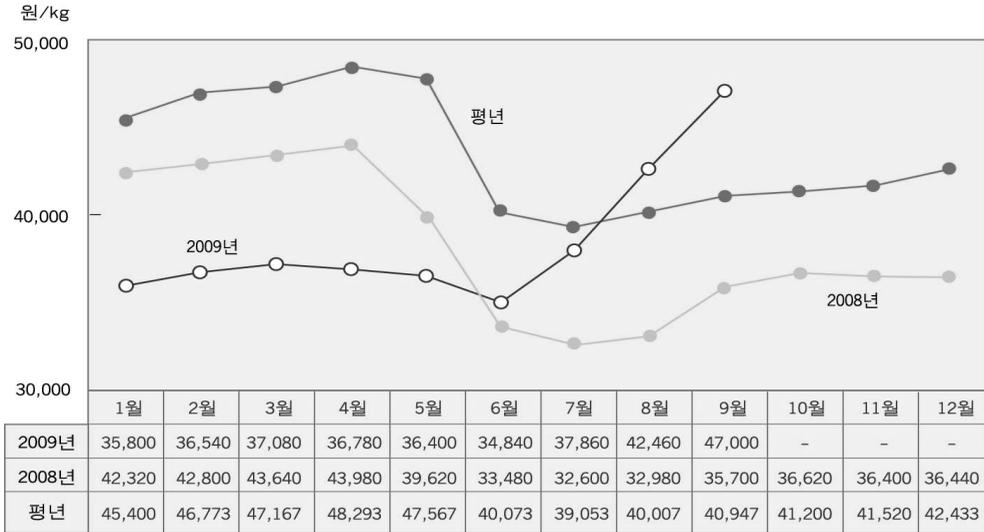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9%, 평년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김장철인 11~12월 무 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던 감자 재배 농가들이 월동무로 작목 전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임.

2.3. 마늘

- 마늘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4만 2,440원(난지형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26%, 평년 동기보다 6% 높은 수준임.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35만 7천 톤으로 작년산(37만 5천 톤)보다 5%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이 확정 발표하였음.

【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9월 중국 마늘 산지가격은 마늘 생산량과 저장량 감소로 톤당 960(작년 150달러) 달러로 평년대비 5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3/4분기 신선마늘 수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마늘 9월 수입량은 냉동마늘 3,255톤, 건조마늘 575톤이며, 신선마늘로 환산할 경우 4,506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6% 감소하였음.
- 9월 중국산 깐마늘 kg당 국내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보다 크게 높은 3,500원으로 국내산 깐마늘과 비슷한 수준임.
- 저장업체 9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재고량은 10%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재고량이 작년보다 적고 중국 마늘 산지가격 강세로 수입량도 적을 것으로 보여 4/4분기 마늘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9월보다도 높을 전망

【 마늘 저온저장량 추정 】

단위: 톤, %

연산	저장량	9/20까지 출고량	9/20까지 재고량
2009	83,117	5,675	77,442
2008	92,417	6,506	85,911
증감률	-10.0	-12.8	-9.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수확 초기 농가 수취가격이 낮았기 때문임. 또한 최근 마늘 가격 상승으로 재배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자 부족으로 더 이상의 파종면적 증가가 어렵기 때문임.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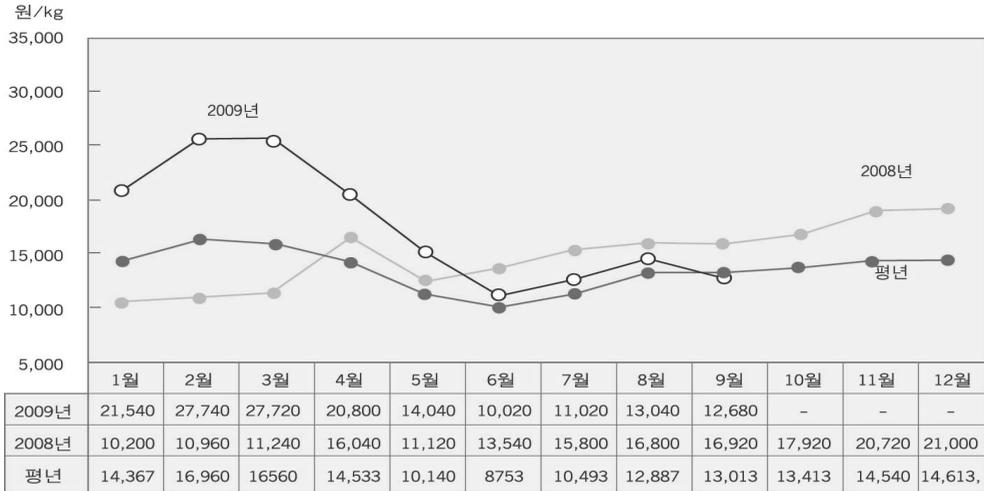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지형	-3.1	1.3	0.0	-	1.2	-	-	0.6
난지형	-	-12.9	-13.7	-11.7	-4.2	-5.1	-5.2	-8.9
전체	-3.1	-5.7	-10.9	-11.7	-0.7	-5.1	-5.2	-7.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4일 표본농가 조사치.

2.4. 양 파

- 양파 3/4분기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1만 2,250원으로 작년(1만 6,510원) 보다 낮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이는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저장량도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137만 2천 톤으로 작년산(103만 5천 톤)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이 확정 발표하였음. 품종별로 조생종은 42%, 중만생종은 31% 증가하였음.

【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재배면적 (ha)	생산량 (천톤)	작년대비 증감률(%)	평년대비 증감률(%)
조생종	2,431	151.8	29.3	0.6
중만생종	16,035	1,060.0	15.5	24.5
전체	18,496	1,211.8	17.1	20.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 9월 중국 양파는 저장완료 단계이며 기상 호조로 상품성은 좋은 상황임. 또한 고랭지 햇양파의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9월 중국 양파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은 톤당 2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산 신선양파 20kg당 민간수입가격은 산지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상승한 2만 2천 원으로 추정됨.

- 9월 수입량은 신선·냉장양파 24톤, 건조양파 16톤, 냉동양파 181톤이며 신선 양파로 환산할 경우 448톤으로 작년(4,472톤)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 저장업체의 9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재고량도 14%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양파 저온저장량 추정 】

단위: 톤, %

연산	저장량	9/20까지 출고량	9/20까지 재고량
2009	578,815	72,744	506,571
2008	508,612	63,525	445,087
증감률	13.8	13.7	13.8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따라서 연말까지 양파 가격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효율적인 출고관리가 필요함.
-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금년 수확기 가격이 평년 수준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내년산에 대한 재배의향이 증가했기 때문임.
- 재배의향면적에 작년 및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내년 양파 생산량은 130~150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수확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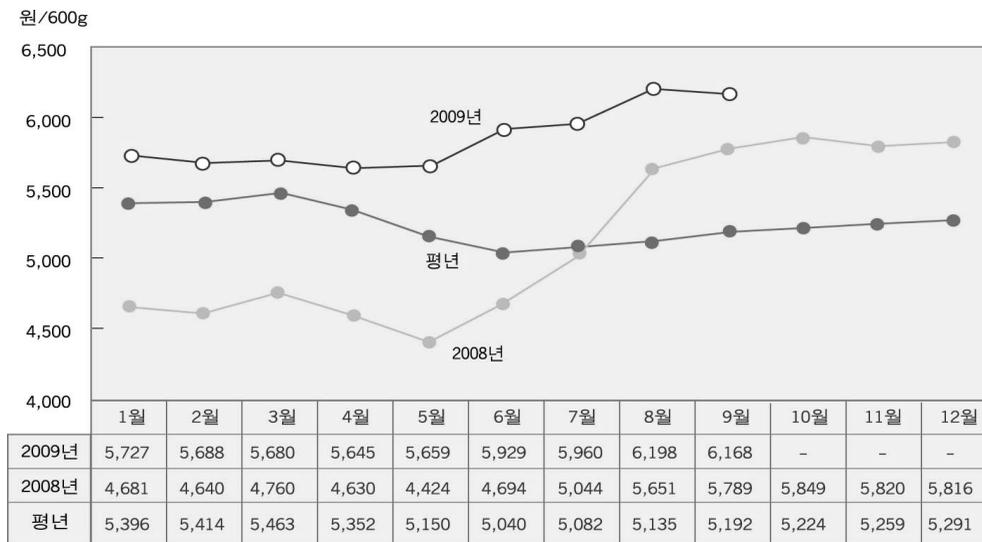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	5.2	-	-	7.3	5.9
중만생종	5.0	9.2	4.8	12.9	-4.6	8.9
전체	5.0	8.6	4.8	12.9	4.3	8.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4일 표본농가 조사치.

2.5. 건고추

- 건고추 화건 3/4분기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600g당 6,11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1%, 19% 높았고, 양건은 7,26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4%, 16% 높은 수준이었음.
- 이는 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09년산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08년산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통계청 발표결과,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4만 4,817ha로 확정 발표되었음.

【 고추(화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고추 작황은 장마 이후 호남, 충남 지역을 제외한 주산지의 병해충 피해가 적어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포기당 착과수는 작년보다 1.8개, 평년보다 3.0개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음.

- 금년 고추 10a당 수확량은 작년보다 3%, 평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월별 수확량은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9월 이후 10a당 수확량이 7~8월보다 더욱 감소할 전망이며 금년 고추 10a당 수확량은 261kg으로 전망됨.
- 9월 고추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 2% 증가한 5,798톤임. 이 중 건고추 수입량은 354톤으로 작년보다 29% 증가하였고 고추 관련품목 수입량을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은 5,444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고추 10월 전체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10% 감소한 6,900톤으로 전망됨. 이는 국내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지 가격 회복으로 수입가격이 작년 동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건고추(화건) 10월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월보다 각각 3%, 15% 높고, 9월 대비 약보합세인 상품 600g당 6,000원으로 전망됨. 이는 수입량이 감소하고 '09년산 건고추 생산량도 '08년산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금년 고추 추정 생산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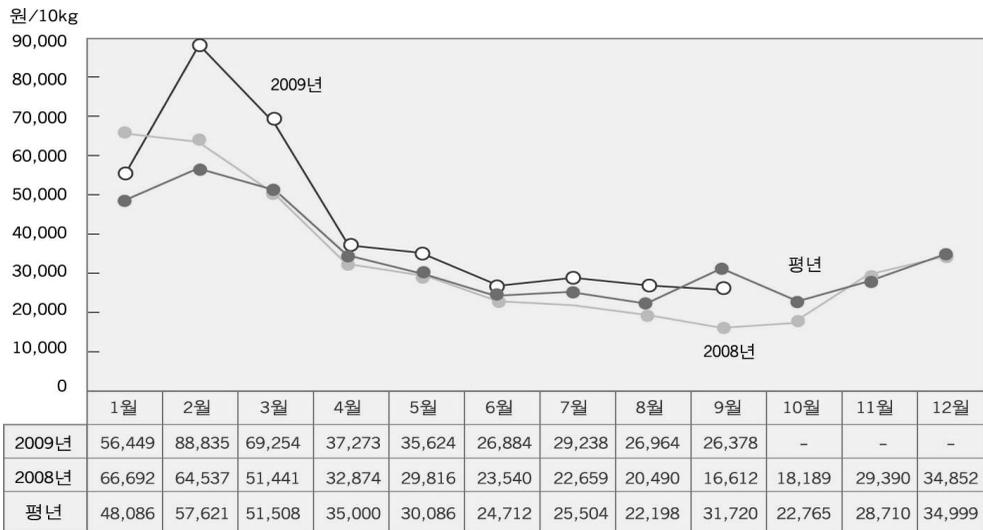
구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톤)
2009년산		44,817	261	116,938
2008년산		48,825	254	123,509
평년		56,424	256	146,290
증감률(%)	작년	-8.2	2.7	-5.3
	평년	-20.6	2.1	-20.1

주: 2009년산 재배면적은 통계청 확정치임. 평년은 2004~2008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2.6. 일반꽃고추

- 일반꽃고추 3/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27,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8%, 평년 동기보다 4% 높은 수준임.

【 일반꽃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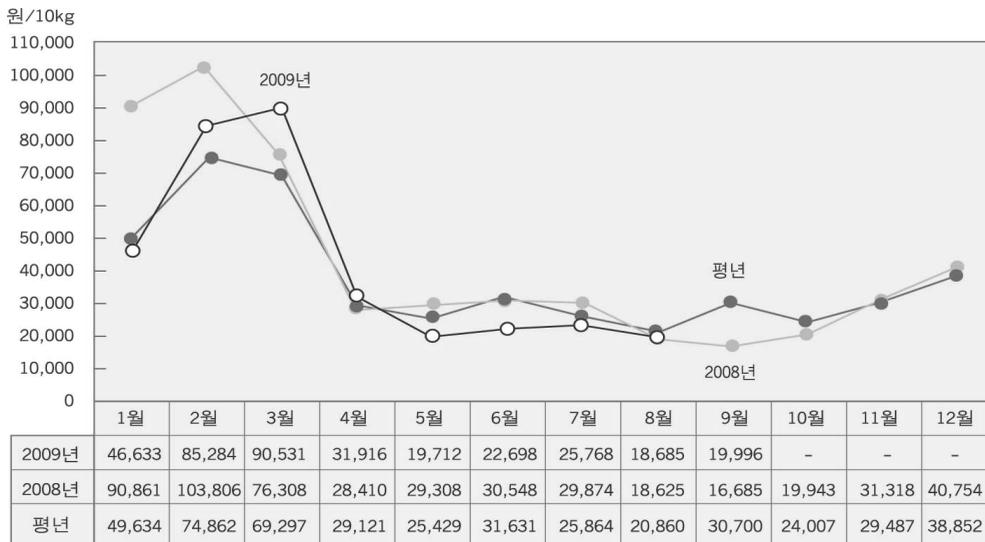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이는 출하 면적은 비슷하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단수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일반꽃고추 10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3%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전남 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 면적이 소폭 감소하고 강원과 충청 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2% 감소하기 때문임. 따라서 10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2만 2,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1% 높을 전망이다.
- 10월 정식 면적은 경남 지역에서 출하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가 늘어 작년 동월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2.7. 청양계꽃고추

- 청양계꽃고추 3/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21,5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 평년 동기보다 17% 낮은 수준임.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 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이는 주산지인 강원과 경남 지역의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청양계꽃고추 10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강원과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이 1% 증가하지만 강원과 충청 지역의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2% 감소하기 때문임. 따라서 10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2만 2,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0% 높을 전망이다.
- 10월 정식 면적은 경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의 출하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식을 늦추는 농가가 늘어 작년 동월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2.8. 쪽파

- 쪽파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37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고, 평년보다 7% 높은 수준임.

【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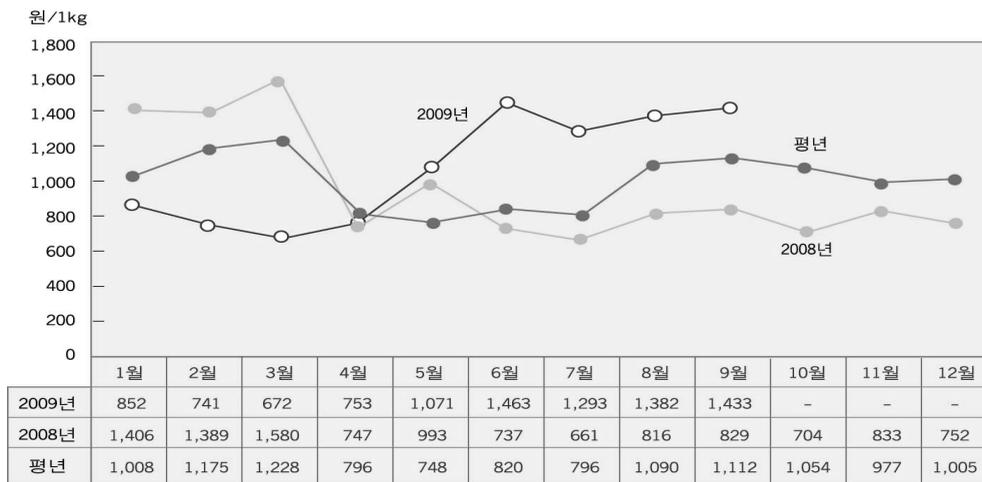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이는 2/4분기 가격 강세로 재배면적은 증가했으나 가을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했기 때문임.
- 쪽파 10월 산지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쪽파 10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상품 kg당 2천 원으로 전망됨.
- 11월 쪽파 출하 면적은 최근 가격이 작년과 비슷함에 따라 작년 동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9. 대파

- 대파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370원으로 작년보다 78%, 평년보다 37% 높은 수준임.
- 이는 작년 동 분기 가격 약세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대파 10월 산지 출하량은 출하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작년 동월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대파 10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1,4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크게 높을 전망이다.
- 대파 11월과 12월 출하 면적은 가격 강세로 중부 지역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 되면서 각각 5%,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겨울대파 재배 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난 출하기에 가격이 낮았기 때문임. 지역별로는 전남과 부산 지역이 각각 3%, 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부산 지역은 여름 장마 피해 이후 가격 상승으로 재정식과 추가 정식이 활발히 이루어져 면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겨울대파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조사시기	전남	부산	전체
8. 20	(-2.6)	-5.1	-3.2
9. 20	(-2.6)	-1.7	-2.4

주: ()는 확정치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 조사치.

- 금년 가을 추가 정식이 되어 내년 봄에 출하되는 월동(봄)대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전북 지역에서 각각 9% 증가하여 봄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월동(봄)대파 재배 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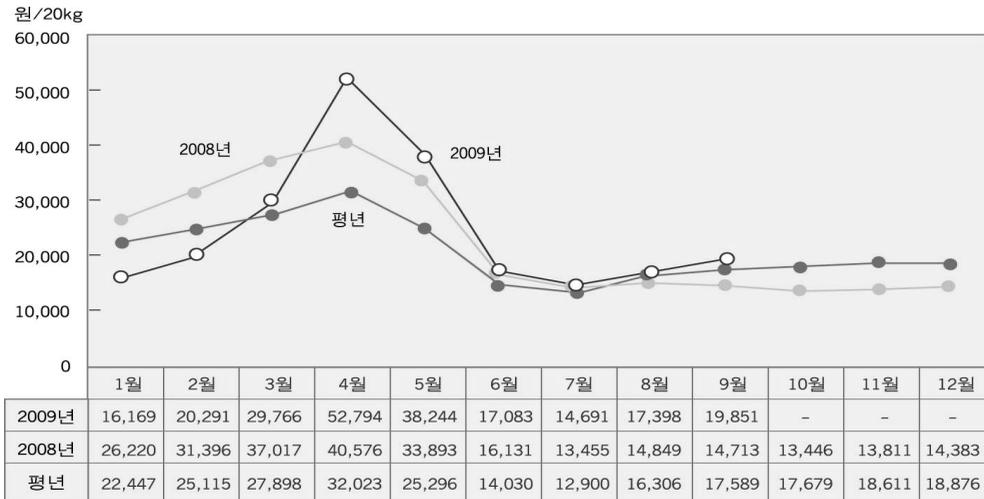
조사시기	경기·강원	충청	전북	경북	전체
8. 20	3.9	-0.6	8.7	0.3	2.8
9. 20	8.8	1.6	8.7	0.4	5.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 조사치.

2.10. 감 자

- 수미 3/4분기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만 7,31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 평년 동기보다 11% 높은 수준이었음.
- 이는 고랭지감자와 저장 봄(노지)감자 출하량이 작년 동월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고랭지감자와 저장 봄(노지)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수미 10월 전체 출하량은 작년 동월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 고랭지감자 10월 출하 면적은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전망이며 10a당 수확량은 비대기 생육 부진과 지속된 가뭄 피해로 작황이 크게 좋았던 작년 동월보다 9% 감소할 전망이다.

【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한편, 저장 봄(노지)감자 10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8% 감소할 전망이다.
- 수미 10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월보다 각각 56%, 19% 높고, 전월대비 강보합세인 상품 20kg당 2만 1,000원으로 전망됨.
- 최근 가격 상승으로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전월 조사치보다 회복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특히, 감자 종서 부족 때문에 콩, 무 등으로 작목 전환을 고려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내년산 겨울감자(대지)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의 재배 의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가을감자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전체
-10.4	-8.4	-8.5	-6.1	-6.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표본농가 및 지역 모니터 조사치.

【 내년산 겨울감자 재배 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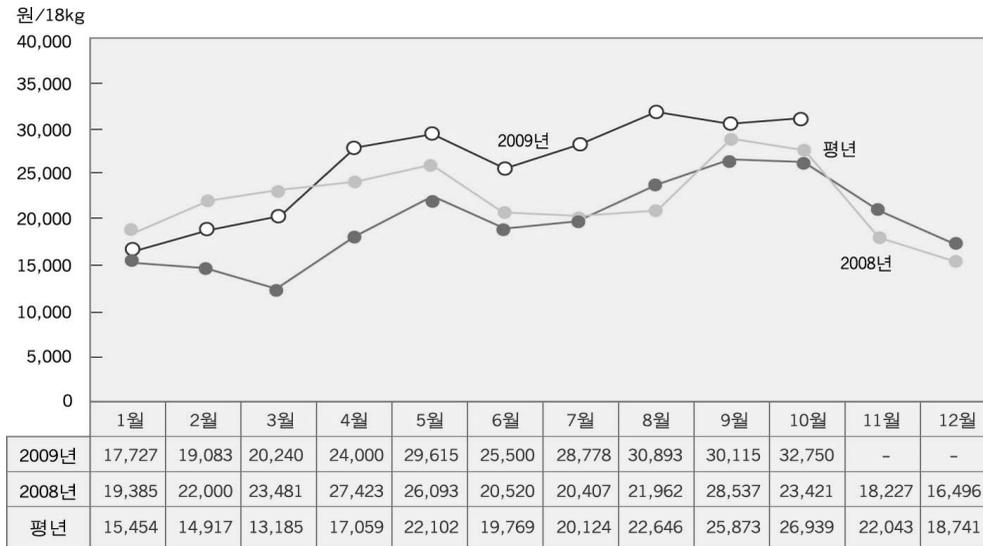
서귀포시	제주시	전체
9.3	7.1	8.6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11. 당근

- 당근 3/4분기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8,39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5%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36% 높은 수준임.
- 이는 가을당근 재배면적 감소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위안화 강세와 중국 당근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당근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당근 10월 전체 출하량은 산지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 출하 면적은 가격 상승으로 강원 지역 9월 출하가 늘어 작년 동월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10a당 수확량은 작황이 양호하여 작년 동월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수입량은 위안화 강세와 중국 생산량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당근 11월 출하면적은 가을당근 출하가 시작되면서 작년 동월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당근 10월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산지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7% 높은 상품 20kg당 2만 9,000원으로 전망됨.
- 가을당근 재배면적은 당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가을당근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조사 시기	영남	충청	전체
7. 20	6.9	0.1	3.0
8. 20	7.0	-2.0	1.9
9. 20	6.2	-2.7	1.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2009년동안 지속된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겨울당근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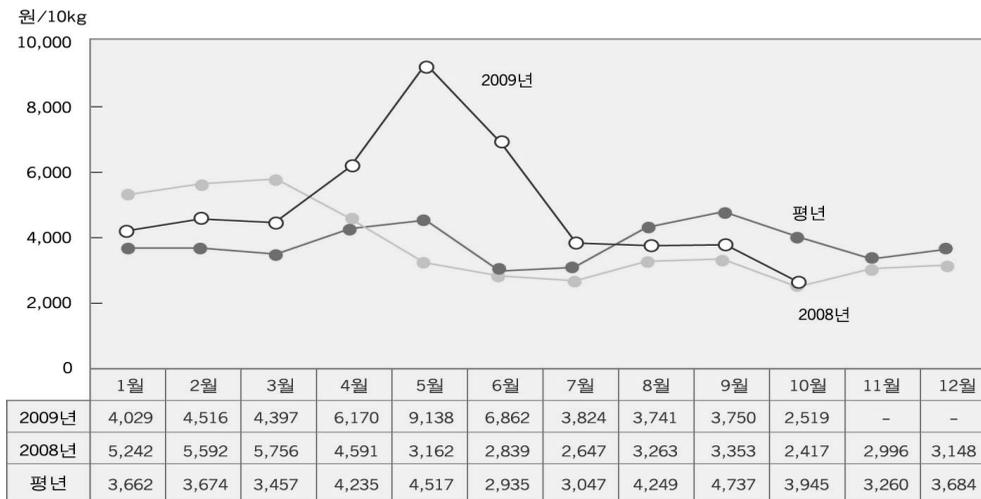
조사 시기	서귀포시	제주시	전체
8. 20	-2.0	1.7	1.3
9. 20	-2.8	0.9	0.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2.12. 양배추

- 양배추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77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2% 높지만 평년보다 6% 낮은 수준임.
- 이는 산지 출하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지만 평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임.
- 양배추 10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작년 동월보다 5% 감소할 전망이다.

【 양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



주: 평년가격은 2004년 1월~200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출하 면적은 작년 동월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강원 지역 2기작 정식이 감소하였고, 충청 지역 가을양배추 재배 면적도 줄었기 때문이다.
- 10a당 수확량은 가뭄으로 구가 작고 고르지 못해 작년 동월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가을양배추 재배 면적은 정식기 가격 하락으로 작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이 마땅한 대체 작목이 없어 소폭 증가하지만, 영남과 충청 지역은 각각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조사 시기	영남	호남	충청	전체
8. 20	-3.2	0.9	-2.7	-1.7
9. 20	-4.8	1.3	-5.1	-2.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올해 초 제주 지역 매취사업에 따른 산지 폐기량을 고려할 경우,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작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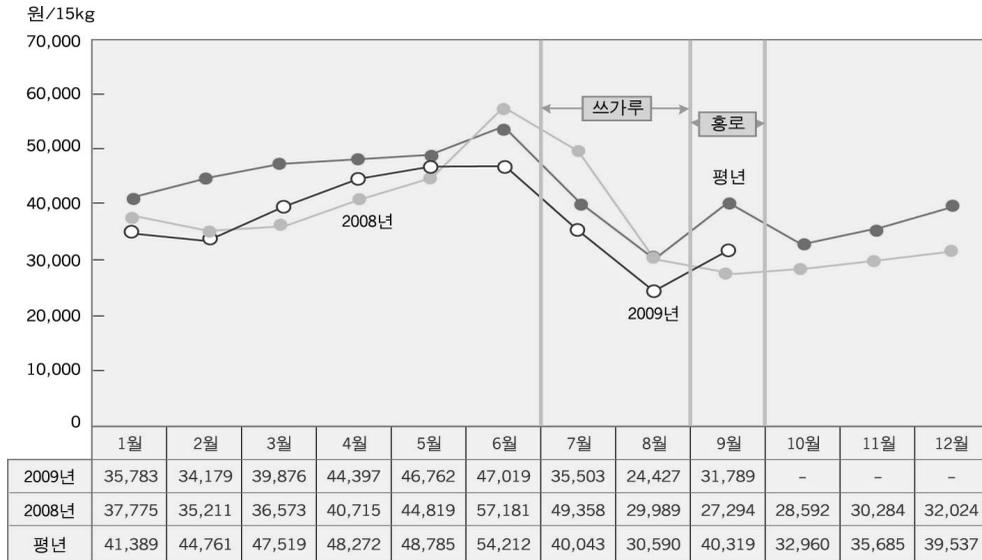
구분	제주	호남	전체
매취사업 이전	-3.6	-2.4	-3.2
매취사업 이후	0.5	-2.4	-0.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 과일⁸⁾

3.1.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4. 1~08. 12월 가격 중 매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쓰가루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에 3만 5천원(중품 2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28% 낮았고 이는 출하량이 작년에 비해 41% 늘었기 때문임. 8월 쓰가루 가격은 2만 4천원(중품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19% 낮았음.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하였으나 품질이 작년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임.
- 9월 사과 출하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크게 늘었으나 당도, 색택이 좋았고 추석 수요로 인해 9월 홍로 가격은 상품 15kg에 3만 2천원(중품 2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7% 높았음.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은미 부연구위원(jeongem@krei.re.kr), 천인석(chunis94@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조용래(cik11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올해 사과 성목면적과 단수가 작년보다 각각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착과수 증가와 예년에 비해 서리, 냉해 피해가 적고 태풍 등 기상재해도 없어 생산량은 작년보다 7% 많은 50만 5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지역별 생산량은 호남 5%, 경북, 충청이 작년보다 7~9%, 경남은 11% 많을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 사과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충청	호남	경남	경북	전국
성목면적	3.2	2.9	7.5	4.4	3.5
단수	3.8	2.3	3.2	3.9	3.7
생산량	7.1	5.2	10.9	8.5	7.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후지의 선택 및 당도는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주산지인 경북 봉화·청송·안동은 가을 가뭄으로 크기는 작년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됨. 올해 후지 당도는 작년보다 0.2°Bx 평년보다 0.4°Bx 높은 14.4°Bx 으로 예상됨.
- 7~9월 사과 출하량은 작년 동기대비 22% 많은 것으로 추정됨. 10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15% 적지만 11월 이후 공급량은 작년보다 3% 많은 28만 4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사과 출하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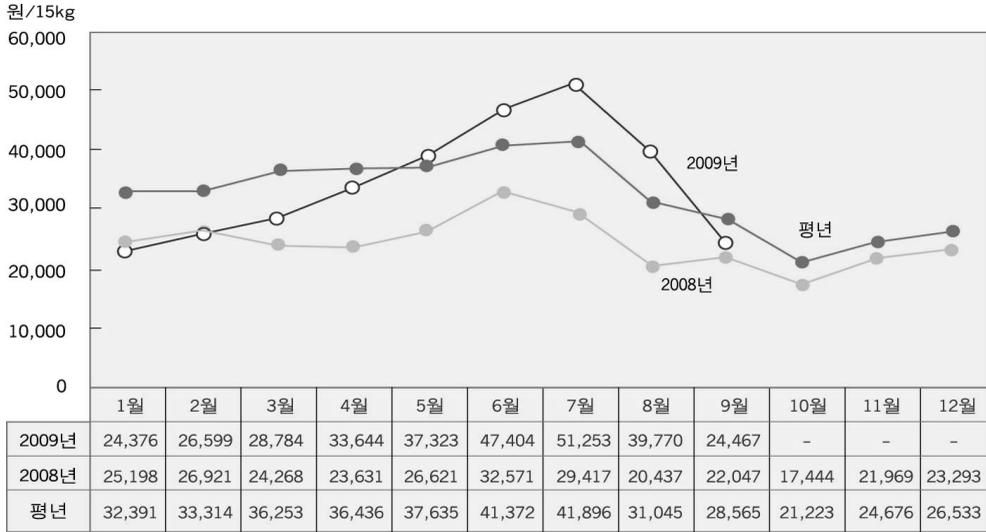
단위: 천톤, %

	생산량	수출량	출하량		
			7~9월	10월	11월 이후
2008년산	470.8	4.6	143.6	46.6	276.0
2009년산	505.4	6.2	175.6	39.6	283.9
증감률	7.3	32.1	22.3	-15.0	2.9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한국무역협회('08년 수출량).

3.2. 배

【 배 도매가격(신고 15kg 상품) 】



주: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매일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저장배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15kg에 5만 1천원(중품 4만 1천원)으로 작년보다 74% 높았음. 올해 연초 환율상승 영향으로 과일 수입량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배 가격이 좋아 저장량이 줄고 7월 반입량은 작년보다 43% 적었음.
- 8월 원황 배 가격은 상품 15kg에 2만 8천원(중품 2만 2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고 9월 신고 배 도매가격은 상품 15kg에 2만 4천원(중품 1만 9천원)으로 평년보다 14% 낮았음. 추석 수요로 9월 배 반입량이 작년보다 26% 많았고 사과·단감 등 제철과일의 출하량도 많았기 때문임.
- 올해 배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하지만 기상여건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5% 적은 44만 8천톤으로 전망됨. 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지역별 생산량은 충청과 영남지역은 작년보다 3%, 호남지역은 12% 적지만 경기 지역은 4%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배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국
성목면적	-2.3	-4.5	-9.7	-11.0	-8.0
단수	5.8	1.8	-2.1	7.7	3.2
생산량	3.5	-2.7	-11.8	-3.3	-4.8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수확기 기상호조로 배 크기, 모양, 당도 등 품질은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신고배의 당도는 작년보다 0.5°Bx, 평년보다 0.2°Bx 높은 12.1°Bx 이고 황금배도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됨.
- 8~9월 배 출하량은 9월 추석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작년보다 22% 많았음. 올해 배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고 추석 이후 출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4% 적은 2만 9천톤, 11월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17% 적은 21만 9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배 출하량 추정 】

단위: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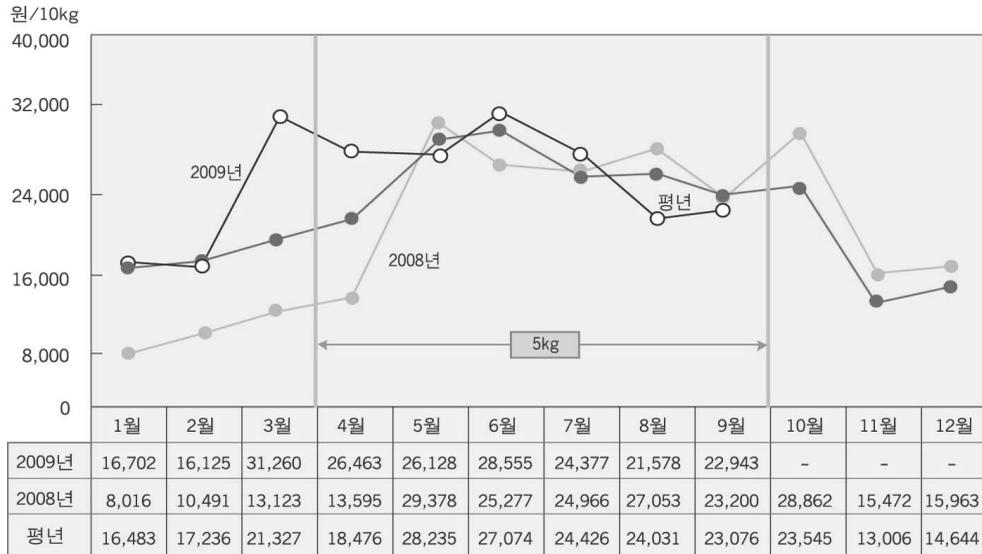
	생산량	수출량	출하량		
			8~9월	10월	11월 이후
2008년산	470.7	23.6	144.0	30.1	263.0
2009년산	448.1	25.1	175.4	29.0	218.6
증감률	-4.8	6.1	21.8	-3.8	-16.9

주: 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08년 생산량은 산지폐기 1만톤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08년 수출량).

3.3. 감귤

【 감귤 도매가격(상품) 】



주: 4~9월은 5kg, 2009년 5월은 3kg, 10~3월은 10kg 기준임. 평년은 2004~08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시설온주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5kg에 7월 2만 4천원, 8월 2만 2천원, 9월 2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았음. 작년 고유가의 영향으로 올해는 후기 가온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8월 이후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고 대체과일 출하량도 많았기 때문임.
- 올해 노지온주의 단수는 작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이는 해거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작년보다 착과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생리낙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임.
- 올해 노지온주 재배면적과 성목면적은 각각 18,236ha, 18,124ha로 작년보다 1% 감소하지만 기상여건과 착과상황이 좋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26% 증가한 65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

【 노지온주 생산량 증감률 】

단위 : ha, kg/10a, 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7년	18,469	3,670	677,700
2008년	18,351	2,836	520,350
2009년(예상)	18,124	3,609	654,062
증감률	2007년 대비	-1.9	-1.7
	2008년 대비	-1.2	27.3
			25.7

주: 09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07, 08, 09년 성목면적, 07, 08년 생산량).

- 노지온주 출하량은 작년보다 10월 32%, 11월 24%, 12월 이후 14% 많을 전망이다. 10월 출하량이 많은 것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극조생 첫 출하시기를 작년까지 10월 중순 이후로 정했으나 올해는 완숙되면 자율적으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임.

【 노지온주 출하량 추정 】

단위: 톤, %

	생산량	출하량			
		계	10월	11월	12월 이후
2008년	520,350	374,405	31,032	112,653	230,720
2009년	654,062	444,762	40,807	139,915	264,040
증감률	25.7	18.8	31.5	24.2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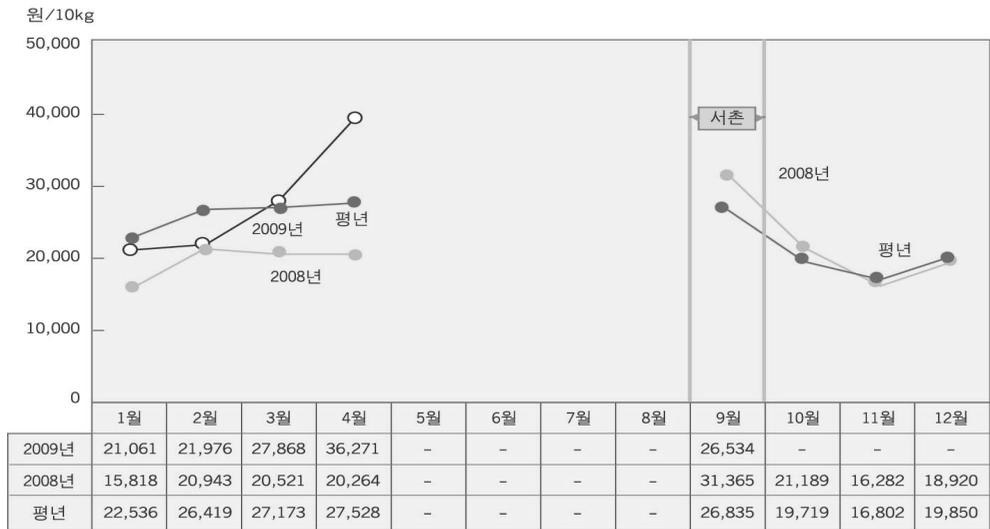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는 9월 이후 일조량이 많아 당도는 작년과 비슷한 10.1°Bx이고, 착과량이 많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과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오렌지 3/4분기 수입량은 작년보다 26%, 평년보다 24% 적은 3,500톤 수준이었음. 올해는 전반적으로 국내 과일 생산이 많은 해이므로 과일 수입업체가 수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임.
- 오렌지 10월 수입량은 작년보다 20% 적은 2,100톤으로 예상되는데 칠레산 9월 수입량이 많아 현재 재고량이 많기 때문임. 주요 수입국은 남아공과 칠레로 예상됨.

- 2009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산 제주 노지감귤 중 비상품 감귤의 시장출하를 2009년 10월 29일~2010년 3월 31일까지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시행
 - 이번 조치로 크기가 매우 작거(지금 51mm이하 또는 무게 54.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중결집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국내시장에 출하 금지(가공용 제외)

3.4. 단감

【 단감 도매가격(10kg 상품) 】



주: 9월은 서촌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단감은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8% 줄지만 단수는 9%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1% 많은 21만 8천톤 수준으로 전망됨.
- 10월 이후 출하되는 단감의 예상 당도는 작년보다 0.2°Bx 높을 것으로 조사됨. 생육 후기 기상여건이 좋았고 일조량이 많았기 때문임.

- 외관과 크기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좋을 것으로 나타남. 다만 8~9월 과실비대기에 가뭄으로 과실이 크지 않아 대과 비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조사됨.

【 단감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ha, kg/10a, 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8	14,064	1,536	216,030
2009	12,982	1,676	217,627
증감률	-7.7	9.1	0.7

주: '09년 단수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09년 성목면적, '08년 생산량).

- 9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6% 많은 것으로 나타남. 올해는 추석 성수기인 9월 하순에 조생종 대부분이 출하 완료되었기 때문임. 10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2% 적고, 11월 출하량은 3%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단감 출하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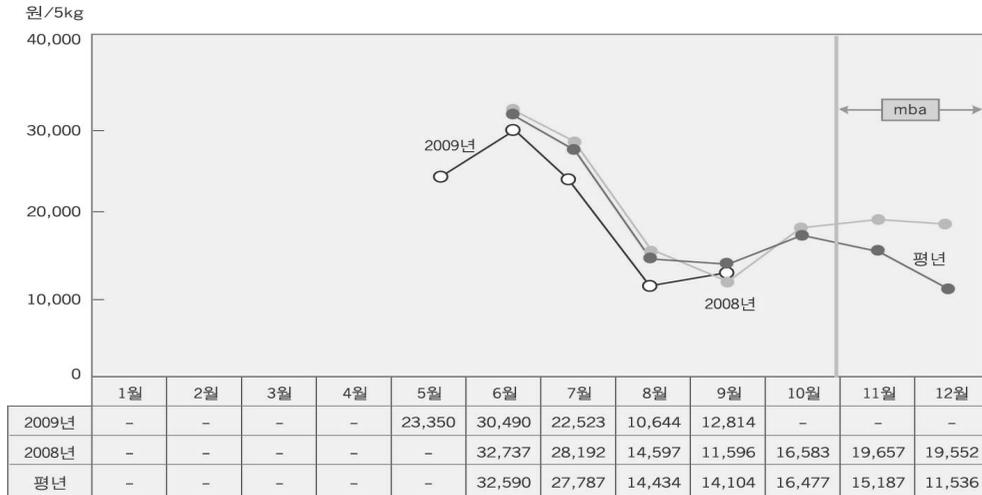
단위: 톤, %

	생산량	수출량	출하량				
			계	9월	10월	11월	12월이후
2008년	216,030	4,389	198,748	4,354	42,134	59,028	90,231
2009년	217,627	8,350	198,040	7,758	41,192	57,432	91,658
증감률	0.7	13.0	-0.4	5.5	-2.2	-2.7	1.6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한국무역협회('08년 수출량).

3.5. 포도

【 포도 도매가격(5kg 상품) 】



주: 5월은 델라웨어 2kg, 6월 중순~10월은 캠벨얼리, 11~12월은 MBA 가격임. 평년은 2004~08년
 일별 가격 중 매월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시설포도 7월 캠벨얼리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5kg에 2만 3천원(중품 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20% 낮았음. 이는 반입량이 작년보다 32% 많았고 잦은 강우로 당도가 낮았기 때문임.
- 8월 캠벨얼리 가격은 상품 5kg에 1만 1천원(중품 8천원)으로 작년보다 27% 낮았음. 반입량이 소폭 줄었으나 7월 긴 장마로 당도가 낮았기 때문임.
- 9월 캠벨얼리 가격은 상품 5kg에 1만 3천원(중품 1만원)으로 작년보다 11% 높았음. 반입량은 작년과 비슷하나 8월 이후 기상이 양호하여 당도 등 품질이 좋았고 추석 수요가 많았음.
- 포도 단수는 수확기 기상여건 호조로 열과 및 병충해가 적어 작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포도 성목면적은 작년과 비슷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올해 생산량은 작년보다 2% 많은 33만 9천톤으로 추정됨.

【 포도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8년	15,214	2,193	333,596
2009년	15,144	2,239	339,094
증감률	-0.4	2.1	1.6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년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09년 성목면적).

- 포도 출하량은 9월까지 작년보다 4% 많았던 반면 10월 출하량은 4% 적을 것으로 예상됨. 노지 재배면적이 줄었고 수확기 일조량이 좋아 출하시기가 일부 9월로 앞당겨져 10월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7%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11월 이후 출하량은 출하면적은 감소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포도 출하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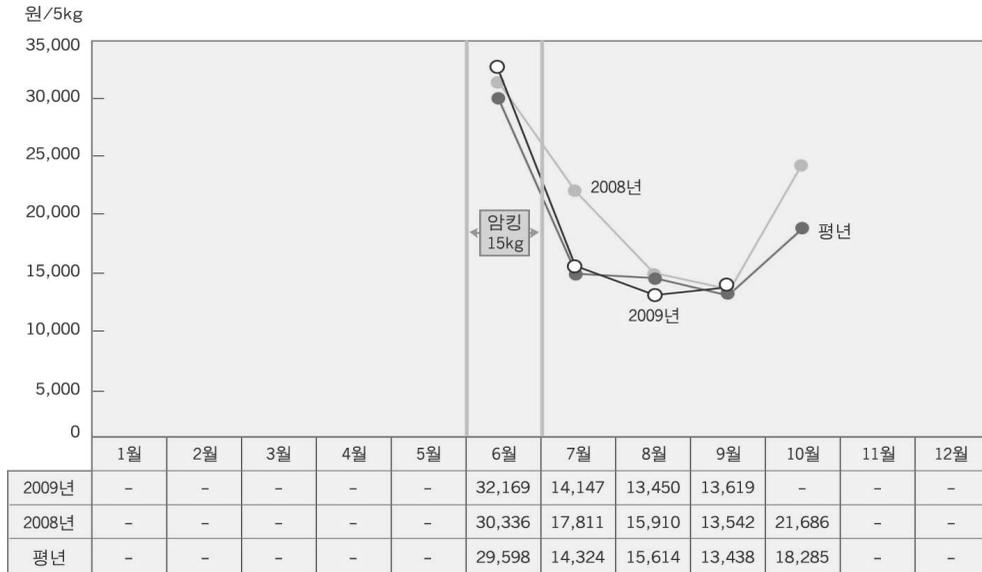
단위: %

	9월까지	10월	11월 이후
출하면적	1.5	-6.9	-3.0
단수	2.8	2.9	2.9
출하량	4.3	-4.2	-0.2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6. 복숭아

【 복숭아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08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6월은 암킹 15kg, 7월은 창방, 8월은 미백, 9월은 유명, 10월은 황도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유모계 월봉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 4.5kg에 작년과 비슷한 1만 5천원(중품 1만원), 창방은 22% 낮은 1만 4천원이었음. 7월 천도계 선프레 가격은 상품 15kg에 작년보다 7% 낮은 2만 8천원(중품 1만 8천원), 천홍은 21% 낮은 3만 3천원(중품 2만 1천원)이었음. 7월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이유는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고 긴 장마로 인해 당도가 낮았기 때문임.
- 8월 유모계 미백 가격 상품 4.5kg에 작년보다 16% 낮은 1만 3천원(중품 9천 1백원), 천도계 천홍 가격은 상품 15kg에 34% 낮은 2만원(중품 1만 3천원), 레드골드는 37% 낮은 2만 4천원(중품 1만 6천원)이었음. 조중생 재배면적이 늘어 8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10% 많았기 때문임.

- 9월 유모계 유명 가격은 상품 4.5kg에 작년과 비슷한 1만 4천원(중품 1만 1천원), 황도는 작년보다 10% 낮은 1만 8천원(중품 1만 3천원)이었음. 9월 천도계 환타 지아 가격은 상품 15kg에 작년과 비슷한 3만원(중품 2만원)이었음. 복숭아 만생종 재배면적이 줄어 9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7% 줄었고 장마 이후 기상여건 호조로 만생종 품질이 작년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격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복숭아 성목면적이 작년과 비슷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한 20만 1천톤으로 추정됨. 숙기별 생산량은 조생종이 작년보다 13%, 중생종 9%, 만생종은 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복숭아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2008	8,823	2,143	189.1
2009	8,810	2,284	201.4
증감률	-0.1	6.6	6.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자료: 통계청('08년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09년 성목면적).

【 복숭아 숙기별 생산량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면적	4.5	2.0	-3.5
단수	8.4	7.1	5.5
생산량	13.3	9.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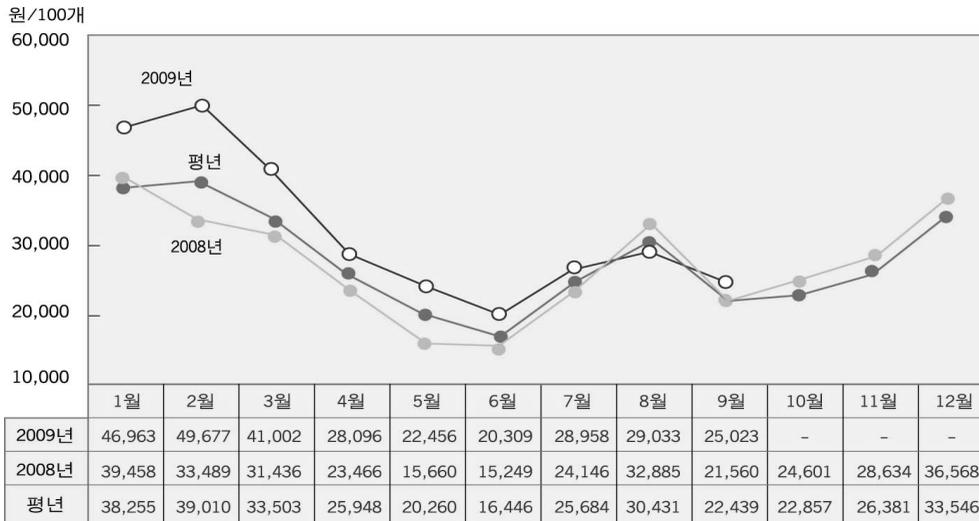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 과채⁹⁾

4.1. 오이

- 백다다기오이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에 7월 2만 9천원, 8월 2만 9천원, 9월 2만 5천원으로 7, 9월은 작년보다 높았으나 8월은 작년보다 낮았음. 7월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긴 장마로 병해충(노균병)이 발생하였고 야간기온 저하로 생육상황이 부진하였음. 8월은 강원지역의 2기작면적 증가로 반입량이 많았으나 9월은 상·중순 반입량이 작년보다 12% 적어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 백다다기오이 10월 출하면적이 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강원 철원, 경기 연천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농가가 백다다기오이에서 파프리카, 애호박으로 품목을 전환하지만 9월 백다다기오이 가격이 높아 강원, 충청지역은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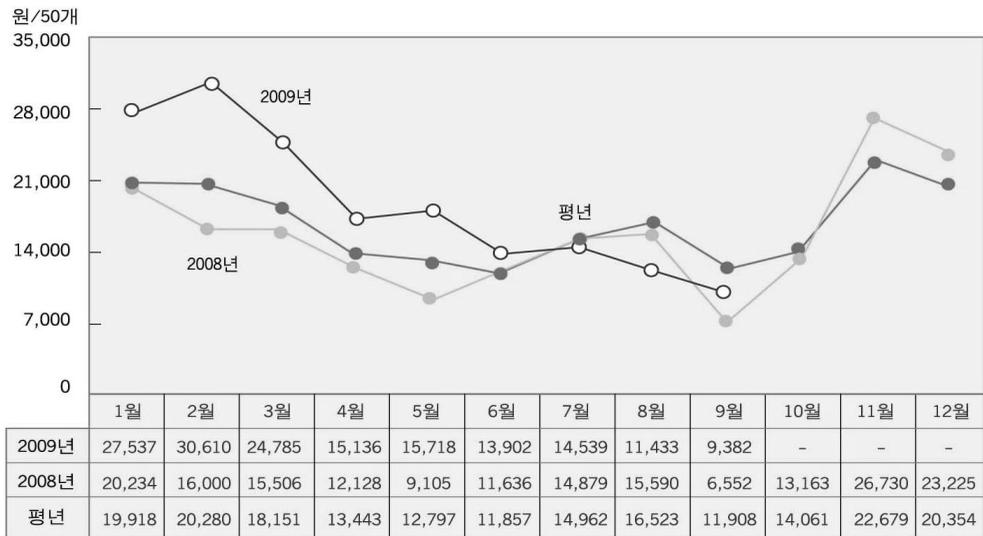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정은미 부연구위원(jeongem@krei.re.kr), 김수림 (surim@krei.re.kr), 지현서(kpnu@krei.re.kr), 김종규(jkim@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백다다기오이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는 작년 유가상승으로 출하를 앞당겼던 일부 농가가 겨울철 가격이 높아 정식시기를 늦출 것으로 조사됨.
- 취청오이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강원, 충남지역 재배면적 증가로 7월 1만 4,500원, 8월 1만 1,400원, 9월 9,400원으로 평년보다 낮았음.
- 취청오이 10월 출하면적이 늘어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가격이 높아 충남 천안·연기, 대전광역시는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백다다기오이에서 전환할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이 늘었음.
- 취청오이 10월 정식면적은 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을 늘리고 전남 보성은 작년 유가상승으로 정식을 앞당겼던 일부 농가가 예년과 같이 10월에 정식하여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취청오이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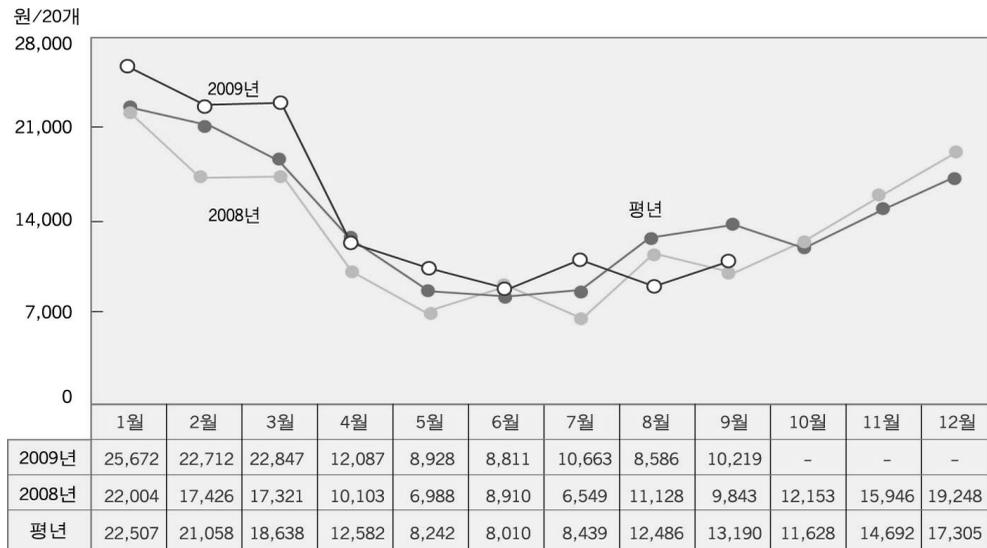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4.2. 호박

- 애호박 3/4분기 도매가격은 7월 1만 700원, 8월 8,600원, 9월은 1만 200원으로 7, 9월은 작년보다 높았고 8월은 낮았음. 7월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긴 장마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9월도 작황부진으로 반입량이 적었지만 8월은 강원 홍천, 충청 일부 지역 재배면적이 늘어 반입량이 많았음.
- 애호박 10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충남 부여, 충북 청원, 광주광역시에서 재배면적을 늘리고 경기 양주, 충북 음성은 일부 농가가 엽채류, 수박에서 애호박으로 전환하였음.
- 애호박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하고 11월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전남 광양에서 한겨울 경영비 부담으로 일부 정식을 앞당겨 감소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작년 겨울철 가격이 높아 일부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늘렸고 경남 의령은 일부 농가가 추키니호박에서 애호박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시설재배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 애호박 도매가격(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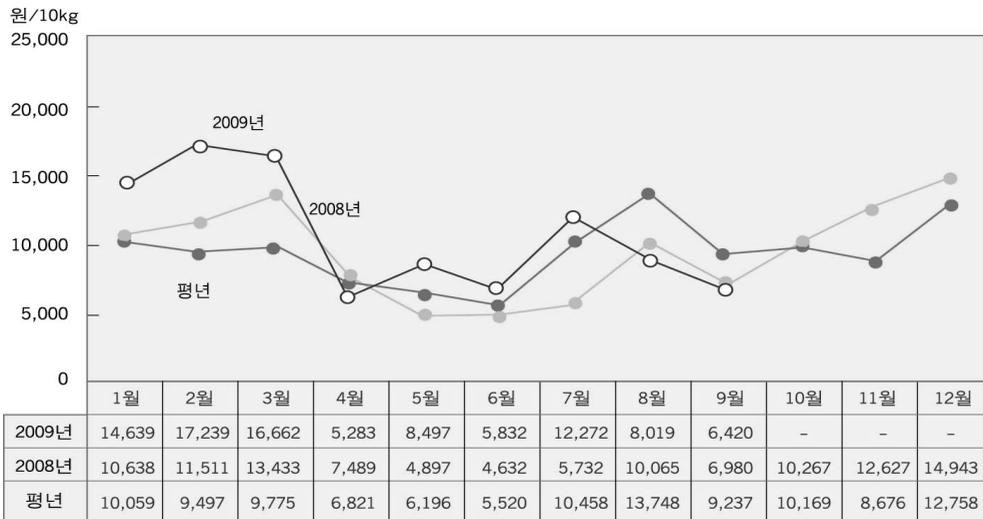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쥬키니호박 3/4분기 도매가격은 7월 1만 2,300원, 8월 8천원, 9월 6,400원이었음. 7월은 중순 강우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작년보다 높았으나 8~9월은 강원, 충청 지역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낮았음.
- 쥬키니호박 10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충남 논산, 경기 안동의 일부 농가가 출하기 가격 상승을 기대로 재배면적을 늘리고 작황도 양호하여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쥬키니호박 10~11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4%,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경남 의령의 일부 농가가 쥬키니호박에서 애호박, 메론 등으로 전환하고 진주에서 수매지연으로 정식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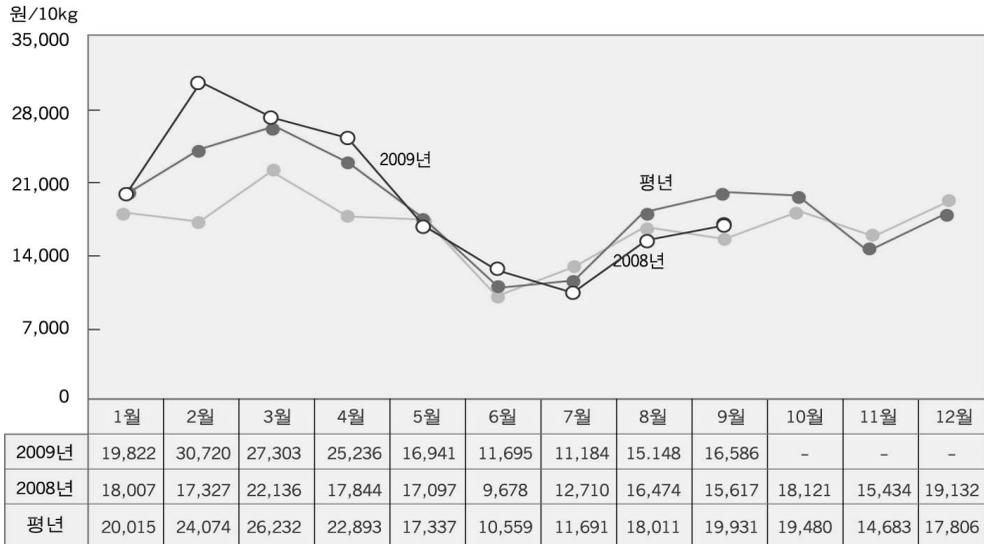
【 쥬키니호박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4.3. 일반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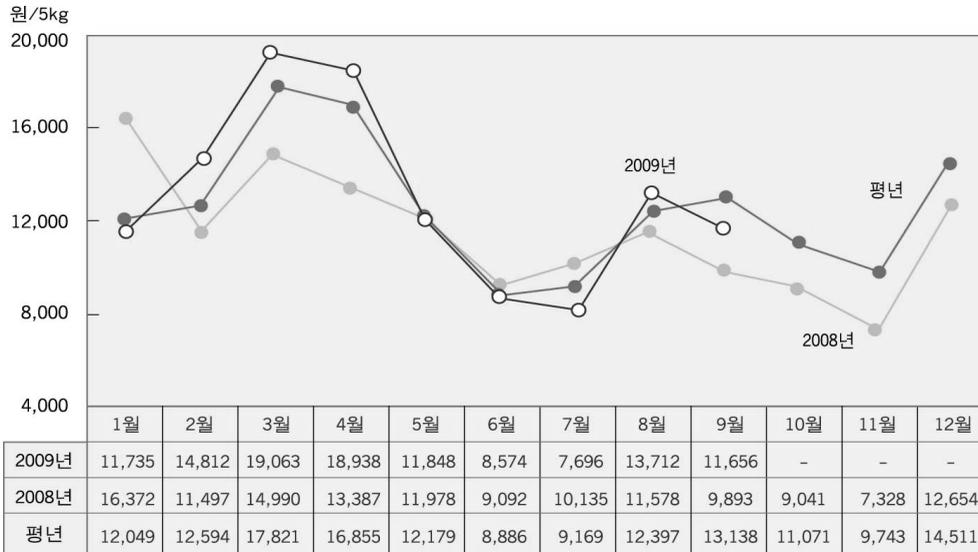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일반토마토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1,200원, 8월 1만 5,100원, 9월 1만 6,600원임. 7월, 8월은 작년보다 각각 12%, 8% 낮았고 9월은 작년보다 6% 높지만 평년보다 17% 낮았음. 7월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전월 야간기온이 낮아 출하가 7월로 지연되거나 신규 시설면적이 늘어 반입량이 많았고 8월은 상·중순 서울 도매시장 가격상승으로 출하가 서울로 집중되어 반입량이 많았음. 9월은 중·하순 추석 수요인 햇과일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임.
- 일반토마토 10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출하면적이 작년과 비슷하나 기상조건 양호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평년보다 26% 많은 양임.
- 일반토마토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충남에서 작년 고유가로 휴경했던 농가가 올해는 정식할 것으로 나타남. 11월은 5% 감소하는데 경남에서 정식을 앞당기거나 도시개발로 면적이 줄 것으로 예상됨.

4.4. 방울토마토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방울토마토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7월 7,700원으로 작년보다 24% 낮았지만 8월은 1만 3,700원, 9월은 1만 1,7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8%씩 높았음. 7월은 출하기 가격기대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음. 8월은 고온기 재배 기피와 가격의 하락으로 반입량이 줄었고 9월도 노동력 부족과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줄거나 조기 종료한 것으로 나타남.
- 방울토마토 10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전남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 줄고 충남지역에서 작년 정식을 앞당겼던 농가가 올해는 늦춰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줄지만 과일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10~11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호남지역은 출하기 가격 기대로 9월로 정식을 앞당기고 충남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4.5. 딸기

- 2010년산 딸기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경남 진주, 전북 완주, 충북지역은 지자체 시설지원으로 신규면적이 늘고 경남 함양은 파프리카, 화훼류 등에서 전환되며 전북 익산, 충북 충주, 경남 사천은 비교적 안정적인 출하기 가격에 대한 기대로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조사됨.
- 전남 담양, 충남 연기 4대강 사업과 도시개발로 재배면적이 줄고 전남 곡성, 경북 경주, 충남 서천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규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남.

【 딸기 지역별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

단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가중치	1.4	25.0	8.7	11.3	8.3	45.3	100
증감률	3.0	-2.2	0.9	-0.8	-2.2	2.0	0.2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국산 품종(설향, 매향, 금향)의 정식면적은 전체면적 중 56%를 차지함. 품종별로 설향이 52%로 가장 많고 아끼히메(장희)가 23%, 레드펠(육보)이 20%로 조사됨.
- 경남지역은 아끼히메가 52%를 차지하고 경북지역은 레드펠이 53%를 차지하는 반면 호남, 충청지역은 설향이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품종별 정식의향면적 비중 】

단위:%

	아끼히메	레드펠	매향	설향	금향	기타
2010년산 ¹⁾	22.5	19.5	3.7	51.8	0.9	1.6
2009년산 ²⁾	26.9	29.2	4.4	36.8	1.2	1.5
증감(%p)	-4.4	-9.7	-0.7	15.0	-0.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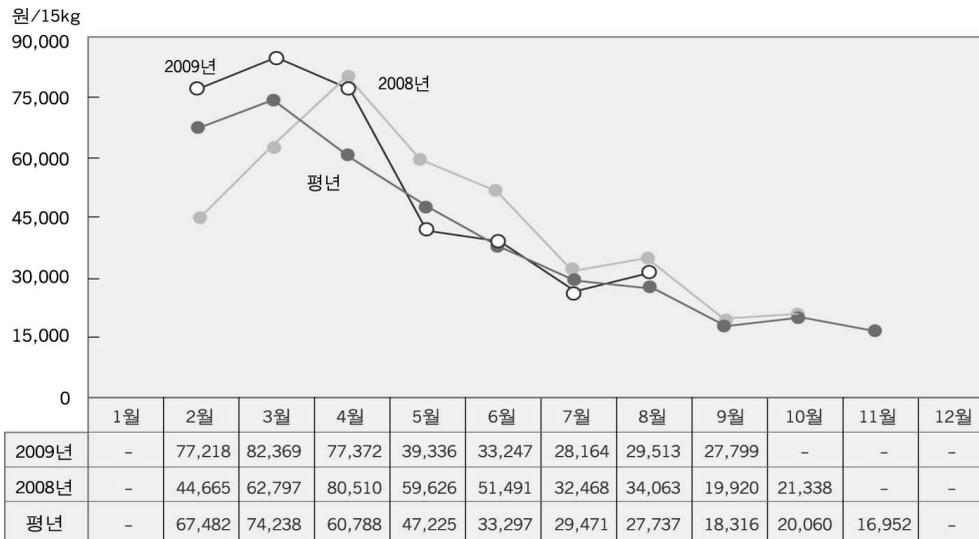
1)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2) 농업관측정보센터, 2008년 9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6. 참외

- 참외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7월은 2만 8,200원으로 작년보다 17% 낮았지만 8월은 2만 9,500원으로 19%, 9월은 2만 7,800원으로 작년보다 40% 높았음. 7월은 주산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반입량이 작년보다 많았지만 8·9월은 토양관리를 위해 예년보다 일찍 수확을 종료하여 반입량이 작년보다 크게 적었음.
- 참외는 평년보다 재배를 조기 종료하여 10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고품질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 토양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올해는 토양관리를 위해 재배를 조기 종료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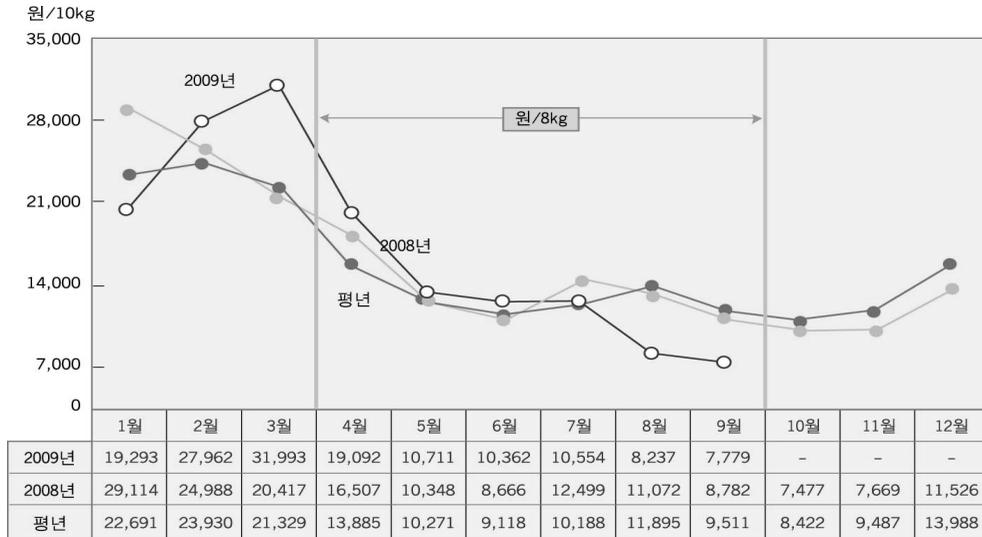
【 참외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4.7. 수박

【수박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4~2008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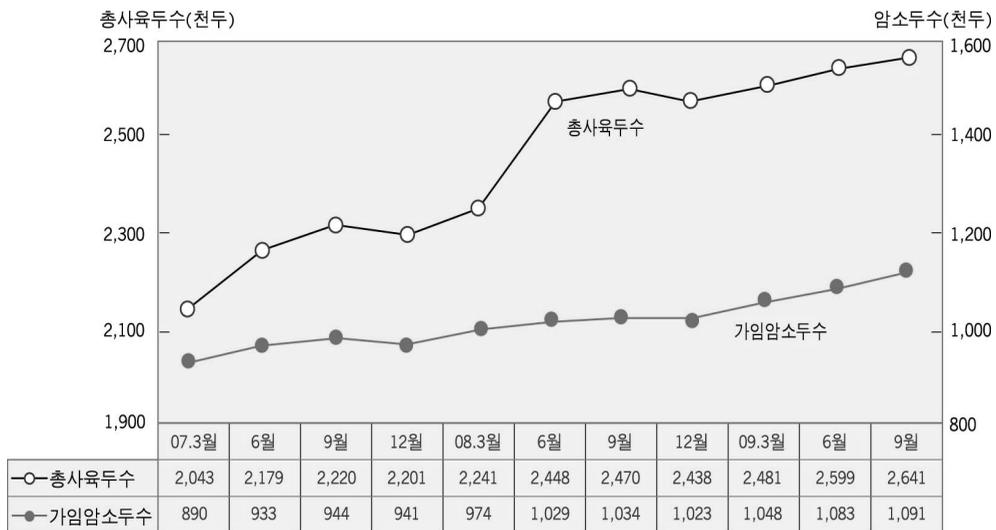
- 수박 3/4분기 도매가격은 7월 상품 8kg 1개에 1만 600원, 8월 8,200원, 9월은 상품 10kg 상자에 7,8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6%, 26%, 11% 낮았음. 출하기 가격 상승기대로 재배면적이 늘어 반입량이 작년보다 각각 4%, 30%, 19% 많았으며 여름철 저온 현상으로 소비가 부진하였음.
- 수박 10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충북 음성에서 일부 농가가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수박에서 오이, 호박으로 전환하여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지만 제철 과일 출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수박 9월 정식면적은 경남지역에서 고령화로 재배규모가 줄어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0월은 경남 의령에서 정식기 가격 낮아 재배규모를 일부 줄이거나 설 출하를 위해 11월로 정식을 늦춰 4% 감소하는 반면 11월은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5. 축산¹⁰⁾

5.1. 한육우

- 송아지 입식이 크게 증가하여 '09년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64만 1천 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만 1천 두(6.9%), 전분기에 비해 4만 2천 두(1.6%) 증가함.
- 가임암소는 109만 1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7천두(5.2%) 증가하였으나, 사육가구 수는 17만 6천호로 전년 동기보다 1만호(5.4%) 감소함.

【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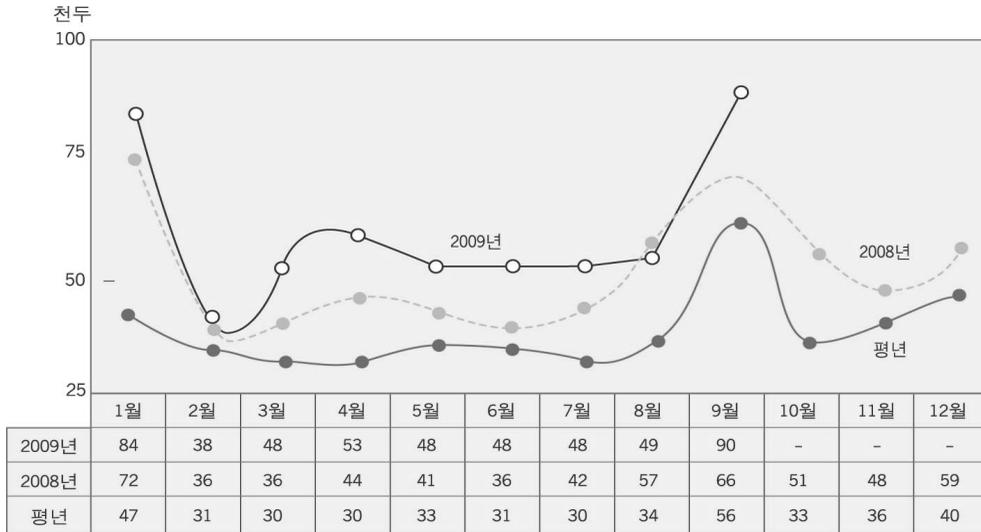
주: 20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과 09년 3월 통계조사방법 변경으로 증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09년 1~9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50만 4천두(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임. 그 중 한우 암소는 전년대비 21.8% 증가한 23만 5천두, 수소 도축은 11.9% 증가한 8만 7천 두, 거세우 도축은 14.7% 증가한 18만 3천 두임.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이정민 연구원(fantom99@krei.re.kr)이 작성하였음.

- 올해 등급판정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시행, 정육점형 식당 확산 등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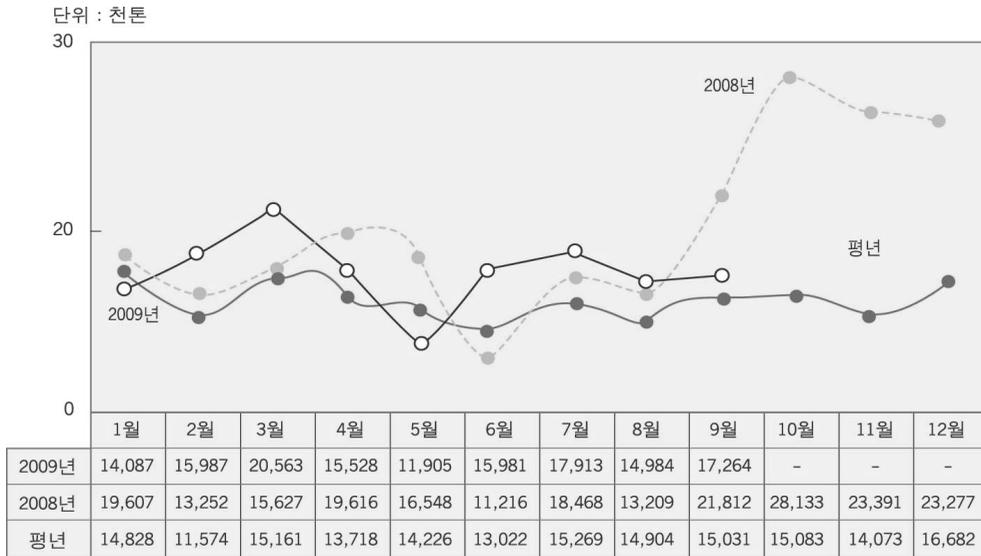
【 한우 월별 등급판정두수 현황 】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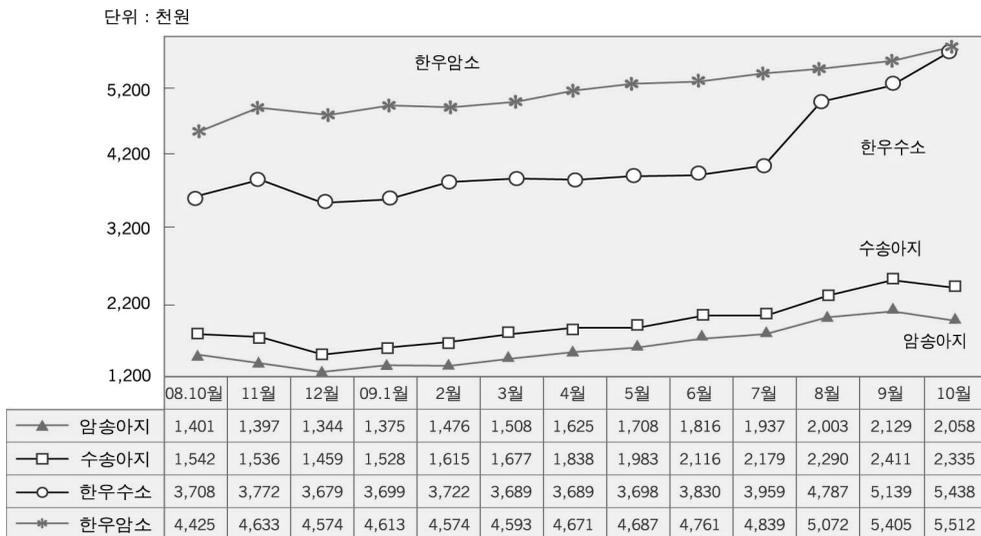
- '09년 1~9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14만 4천 톤이었음. 이 중 미국산이 3만 4천톤(23.8%), 호주산이 8만 5천톤(53.7%), 뉴질랜드산이 2만 5천톤(17.0%), 기타 5백톤(0.5%)임.
- '09년 10월 한우(600kg) 산지가격은 수소 544만원(전년 동월대비 46.7% 상승), 암소 551만원(24.6% 상승), 수송아지 233만원(51.5% 상승), 암송아지 206만원(46.9% 상승)이었음.

【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



자료: 관세청

【 한육우 산지 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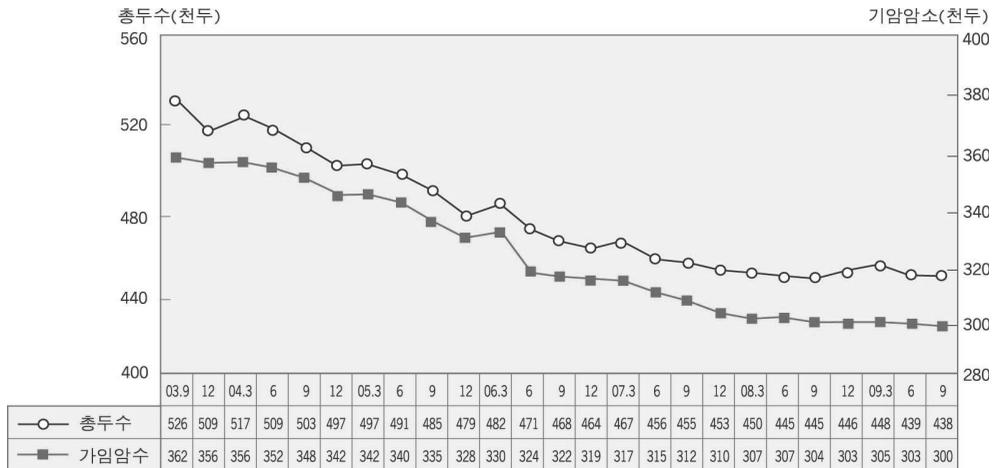
주: 한우 수소 및 암소는 600kg 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2. 젓소

- '09년 9월 젓소 사육마리수는 쿼터량 감소와 저능력우 도태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천 마리($\Delta 0.2\%$), 전년 동기보다 7천 마리($\Delta 1.6\%$) 감소한 43만 8천 마리임. 가임암소 두수는 30만 마리로 전분기보다 3천 마리($\Delta 1.0\%$), 전년 동기보다 4천 마리($\Delta 1.3\%$) 감소하였음.
- '09년 9월 1세 미만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1천 마리(1.0%)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보다 3천 마리($\Delta 3.4\%$) 감소한 8만 6천 마리였음. 1~2세 마리수는 10만 2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2천 마리($\Delta 1.9\%$) 감소하였음. 2세 이상 마리수는 전분기보다 2천 마리($\Delta 0.8\%$), 전년 동기보다 4천 마리($\Delta 1.6\%$) 감소하였음.
- '09년 9월 젓소 사육호수는 6천 8백호로 전분기보다 1백호($\Delta 1.4\%$) 감소하였음. 50마리 미만은 2천 5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1백호($\Delta 3.8\%$) 감소하였고 50마리 이상은 4천 3백호로 전분기와 비슷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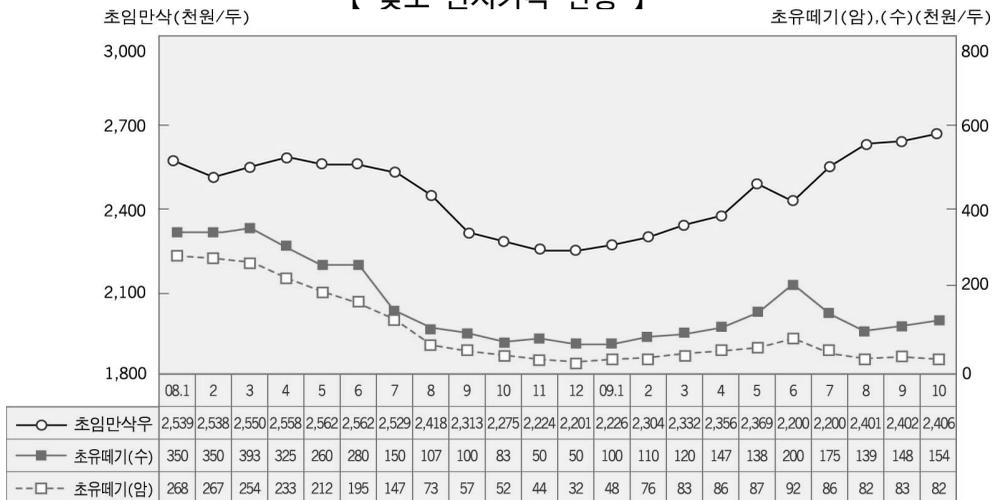
【 젓소 사육마리수 동향 】



주: 20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과 09년 3월 통계조사방법 변경으로 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09년 9월 50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4천 마리 감소(△14.3%)하였지만, 50마리 이상은 8천 마리(2.3%) 증가한 35만 4천 마리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08년 9월 62.1마리에서 '09년 9월 64.7마리로 2.6두(4.2%) 증가하였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09년 7~9월 초유떼기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8만 4천원으로 전분기보다 5.6%, 전년 동기보다 9.5% 낮았음. 10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8만 2천원으로 다소 하락하였음.
 - 초유떼기(수송아지): '09년 7~9월 초유떼기 수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15만 4천원으로 전분기보다 4.7% 낮았지만 전년 동기보다 26.9% 높았음. 10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15만 4천원으로 보합세를 보였음.
 - 초임만삭우: '09년 7~9월 초임만삭우 평균 산지가격은 233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하락하였지만 전분기보다 1.1% 상승하였음. 10월 20일까지 산지가격은 241만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젓소 산지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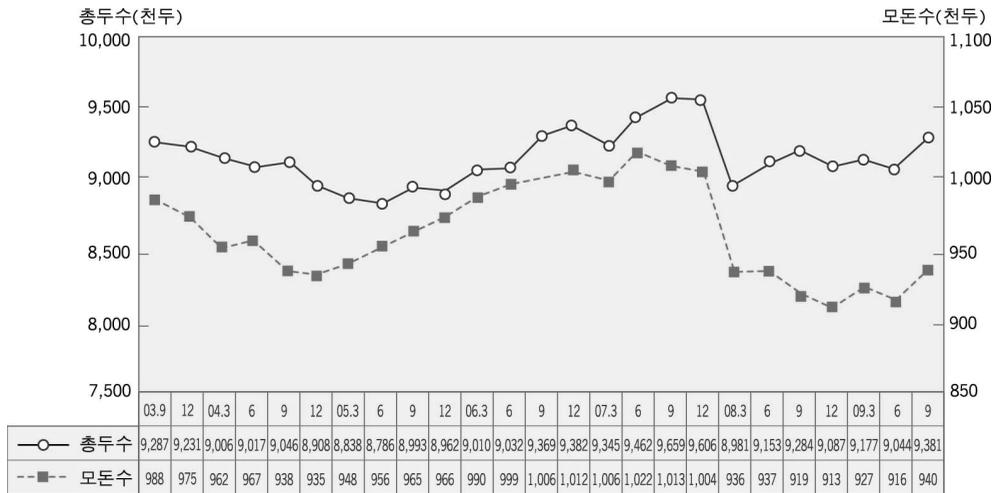
주: 10월 산지가격은 20일까지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3. 돼 지

- '09년 9월 돼지 사육마리수는 국내 돼지가격이 높고 사료가격도 안정되어 전년 동기보다 9만 7천 마리(1.0%) 증가한 938만 1천 마리였음. 모돈수는 94만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하였음.
- '09년 9월 사육 농가 수는 전분기보다 1백호 증가한 7천 8백호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임. 1천 마리 미만 사육 농가 수는 전년 동기보다 1백호(2.1%) 증가한 4천 9백호였으며, 1천 마리 이상은 전년 동기보다 1백호 감소한 3천 호였음.
- '09년 9월 1천 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한 138만 5천 마리였음. 1천~5천마리 사육농가의 사육마리수는 544만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하였지만, 5천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마리수는 255만 마리로 7.0%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마리수는 1,197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3 마리(1.1%) 증가하였음.

【 돼지 사육두수 동향 】



주: 20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과 09년 3월 통계조사방법 변경으로 증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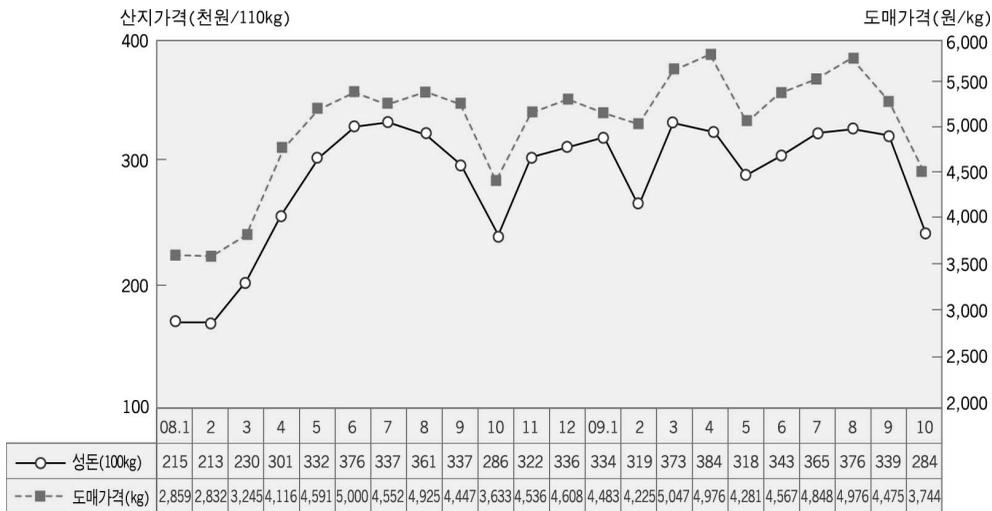
● 돼지 가격 변동

- 산지가격(110kg) :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돼지 성돈가격은 추석 이후 계절적 요인과 각종 행사 감소로 수요가 위축되어 다소 주춤한 상태임. '09년 7~9월 가격은 성돈 110kg 기준 36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높았으며, 10월 20일까지 가격은 성돈 110kg 기준 28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도매가격: '09년 7~9월 전국 공판장 평균 지육가격은 1kg당 4,76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높은 수준이며, 10월 20일까지 가격은 3,74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돼지 도축두수 및 돼지고기 수입

- '09년 1~9월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한 1,024만 마리였음. '09년 1~9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재고누적과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어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한 16만 6천 톤이었음.

【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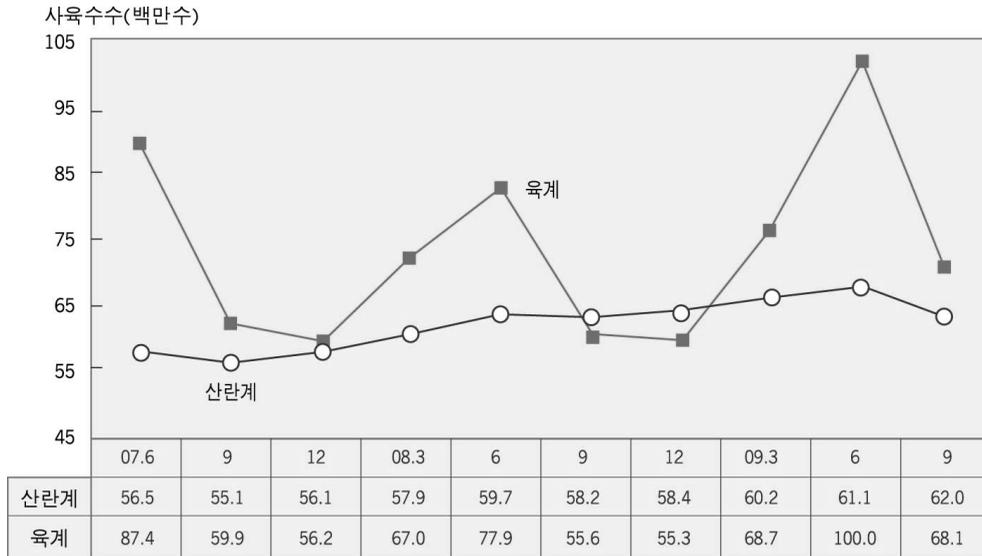
주: 10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20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4. 닭

- 계란가격 호조세로 노계 도태가 지연되면서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6,200만수로 3개월 전보다 1.4%, 전년보다 6.5% 증가
-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9월 사육수수는 전년대비 22.6% 증가한 6,812만수

【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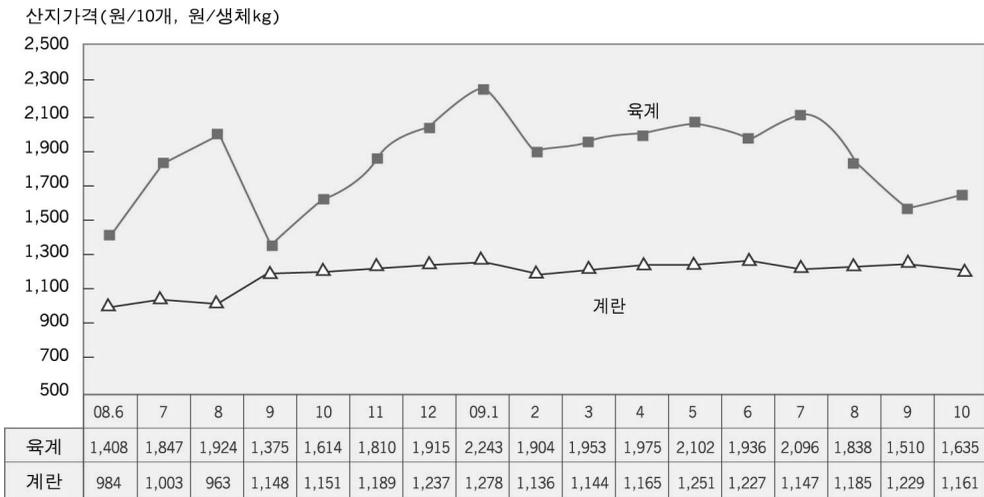


주: 2008년 가축통계 표본 개편과 09년 3월 통계조사방법 변경으로 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2분기에는 행락철 및 학교 급식으로 계란 소비가 증가하여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1,214원으로 나타남.
 - 추석 수요 증가로 3분기 계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4.4% 상승한 1,144원으로 나타남. 계란 산지 가격에는 사료비 상승분이 반영된 가격임.

- 최근 산란노계 도태가 지연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서고 있어 계란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10월 26일 현재 계란 가격 1,121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2분기에는 도계수수가 증가한 반면 닭고기 수입량이 감소하고 계열업체의 냉동 비축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2분기 육계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2.3% 상승한 2,004원으로 나타남.
 - 8월 초에는 기상악화로 닭고기 소비가 부진하였으며, 신형 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수요 상승효과를 상쇄함. 3분기 육계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8% 상승한 1,523원임.
 - 10월 상순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함. 10월 육계 생체 kg당 평균 가격은 1,6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10월 26일 현재 1,983원, 농협 발표가격).

【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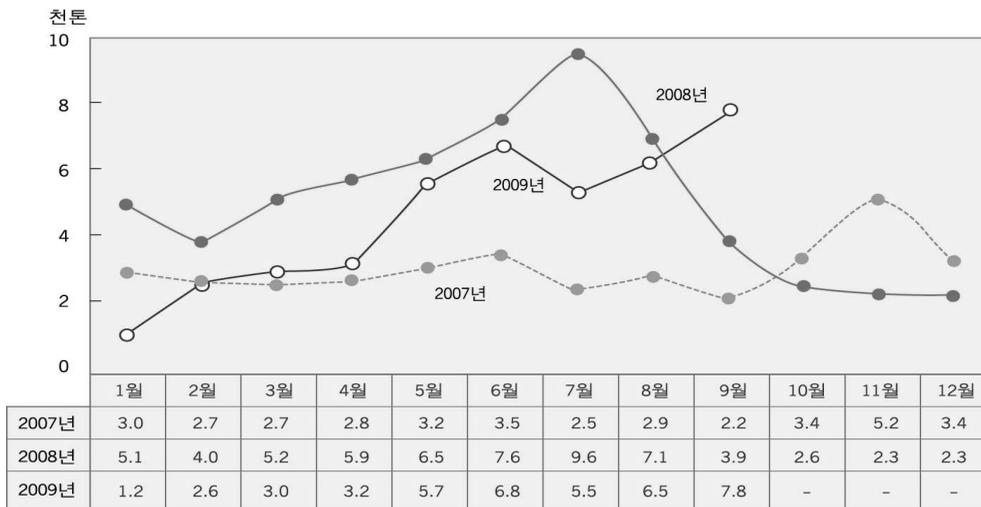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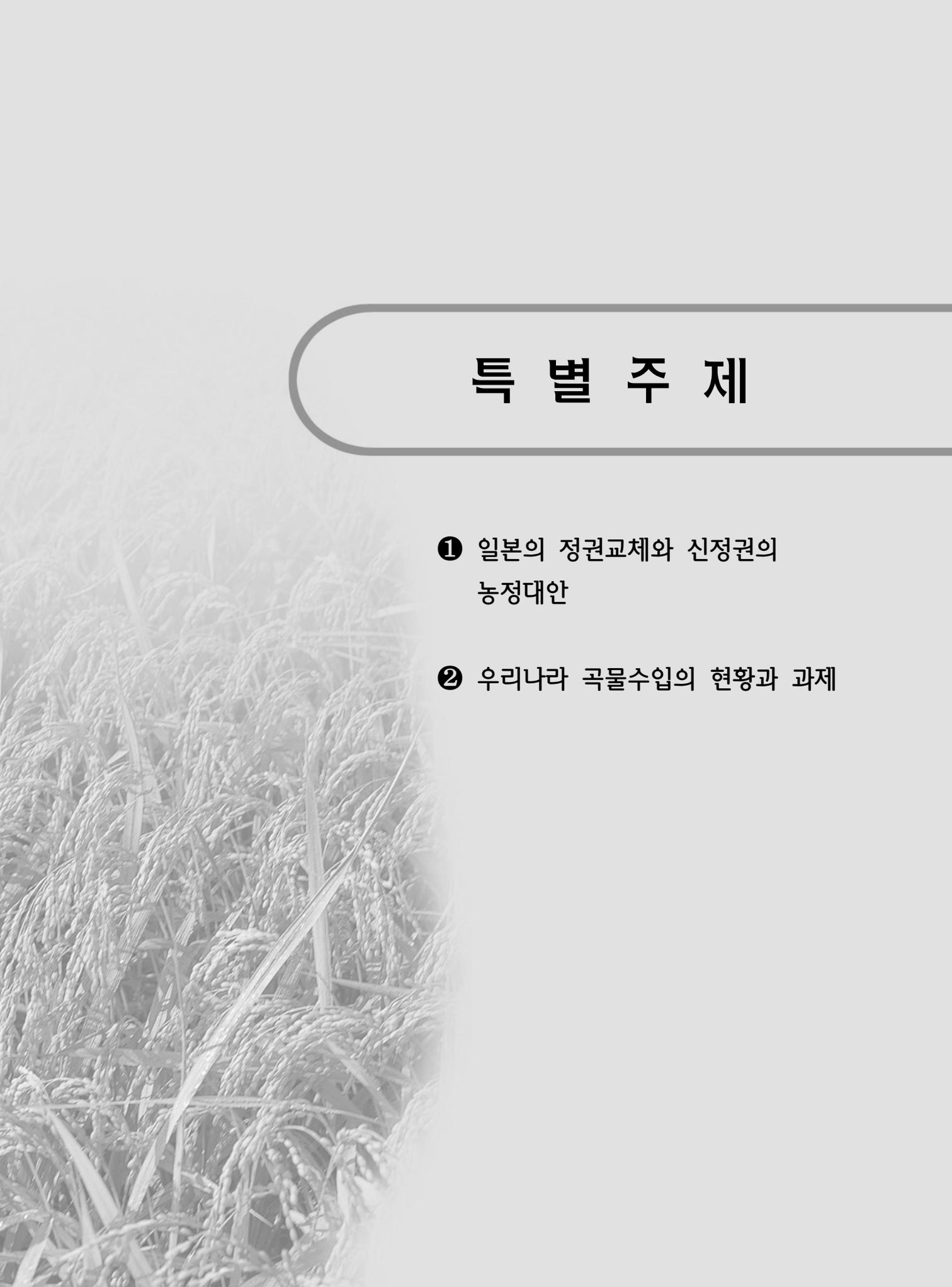
-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
 - 2009년 3분기 산란 종계 입식수수는 14만 7천 수로 전년 동기(15만 8천수)보다 6.9% 감소하였음.
 - 2분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 병아리수는 182만수로 전년보다 13.7%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검역기준)**
 - 미국과 중국간 닭고기 무역 분쟁으로 적체된 물량이 우리나라로 대체수입 되면서 9월에는 전년대비 96.9% 증가한 7,800톤이 수입됨.

【 닭고기 월별 수입 현황(검역기준) 】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 주제

- ① 일본의 정권교체와 신정권의 농정대안
- ②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현황과 과제

【특별 주제 1】

일본의 정권교체와 신정권의 농정대안

-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

김 태 곤*

-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10월 26일로 40일째다. 민주당은 사전에 정권 공약(매니페스토)을 통하여 집권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권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 핵심적인 농정공약은 소득문제 해결, 식량자급률 향상, 지역사회 유지를 중시하여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산어촌 6차산업화’라는 2대 수단을 통하여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책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정책효율을 도모한 것도 큰 변화다.
- 정책결정방식 전환,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농산어촌 6차산업화 촉진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공개된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 의의, 한국 농정에 대한 시사점 등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1. 일본 농업의 동향과 정책 구상

1.1. 농업문제의 인식

- 일본 농업의 문제는 ‘농가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에 있다고 민주당은 인식하고 있다. 시장개방이라는 외압과 농업내부의 노동력 고령화·농지 유희화 등 내압에 의한 생산축소와 가격하락을 배경으로 한 소득 감소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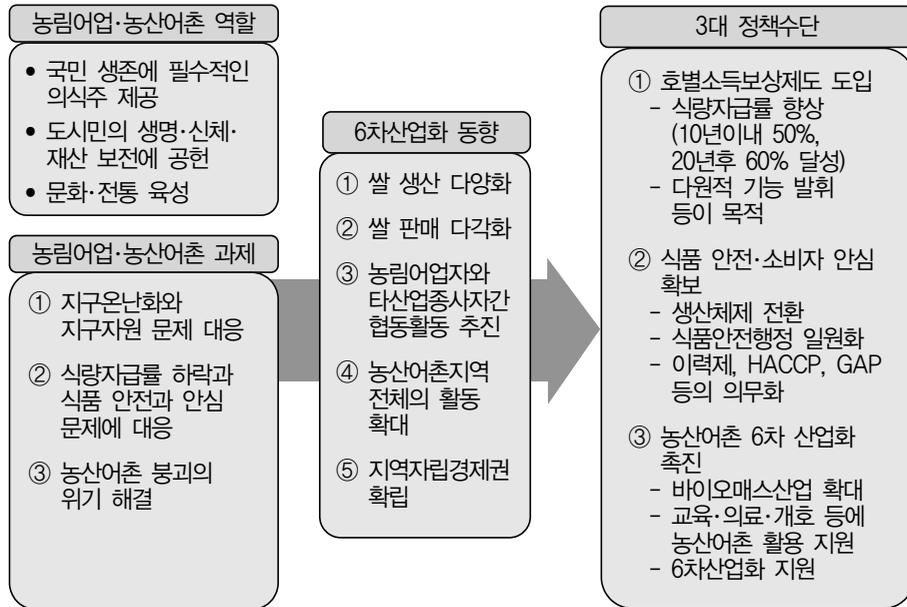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taegon@krei.re.kr)

- 농가소득은 그동안 도시근로자 소득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가를 조직경영과 개별경영(가족경영)으로 구분하는 경우 가족경영은 도시근로자 소득을 대폭 하회한다. 더구나 도시근로자 소득은 감소추세에서 최근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지만 가족경영의 소득 감소는 계속되고 있어 향후 도농간 격차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농촌지역에도 지역경제 붕괴라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정권 공약에서 이에 대한 정책방향과 수단 등을 제시하였다.

1.2. 민주당의 정책구도

- 민주당은 ①지구온난화와 지구 자원문제, ②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품의 안전·안심에 대한 기대상실, ③ 농산어촌 붕괴의 위기 등의 해결을 3대 농정과제로 설정하였다.
-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전에 공헌하며, 나아가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집권 이후 4년간 실현해야 할 정책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추진하며, 소요 재원은 비효율적인 예산의 삭감, 조직 개편과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식량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를 향후 10년간 50%, 20년간 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식품 이력제 확립과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확대하여 식품 안전 및 소비자 안심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산어촌 6차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산어촌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 민주당 정권의 정책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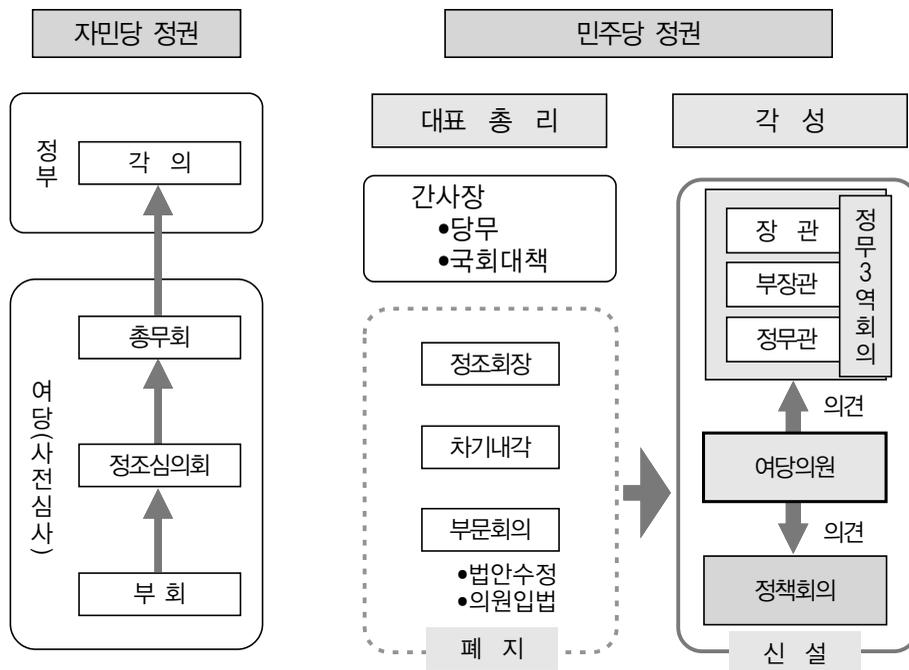
자료 : 민주당, 2008. 12. 24

2. 정책결정방식 전환

- 자민당 정권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우선 각성이 정책초안을 작성하고, 의회 정책조사회(정조) 부회, 정조 심의회, 총무회 등을 거치면서 사전심사를 받고, 이것이 사무차관회의를 거쳐 각의에 최종 결정된다. 정책 결정과정이 관료·자민당·내각 등 정부와 당의 이원체제로 결정되는 불투명성과 족의원·관료·업계 등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폐단이 있었다.
- 민주당은 정책결정을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에 '각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각료위원회는 각 성별로 제안된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여기서 결정된 안건이 '각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 민주당은 또한 각성에서도 정책결정을 정치주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종전의 당 정조 부회를 폐지하고, 대신에 정부측과 여당위원이 정책제안을 하는 장으로서 '정책회의'를 신설하였다.
- '정책회의'는 부장관·정무관·관련 여당위원이 참석한다. 정부측이 정책제안을 설명하고 여당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회의 결과는 부장관의 책임 하에 장관에게 보고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이다.
- 정책논의는 종전의 국회에서 정부로 이관되며, 정부·여당 일원화를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정책회의에서 여당은 의견제시만 하고 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다. 여당위원의 정책결정권을 차단하여 업계 이익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 민주당정권의 정책결정방식 】



자료 : 朝日新聞, 2009年 10月 7日

- 정책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장관, 부장관(2명), 정무관(2명)으로 구성되는 ‘정무3역회의’에서 결정된다. 정무3역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입안은 관련 각료가 참가하는 ‘각료위원회’에 제안하고, 조정을 거쳐 ‘각의’가 결정한다. 이것이 자민당·관료·업계 등 3자 유착을 차단하는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이다.

3.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3.1. 도입 목적

- 호별소득보상제도(‘소득보상’)는 자민당정권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대체하는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전제로 책정된 ‘생산수량목표’에 따라 생산한 판매농가(마을영농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이다.
- 이를 통해 자급률을 향상하고, 6차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산어촌 활성화의 기본 조건을 확립하고, 생산자의 소득확보, 다원적 기능발휘, 지역사회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2.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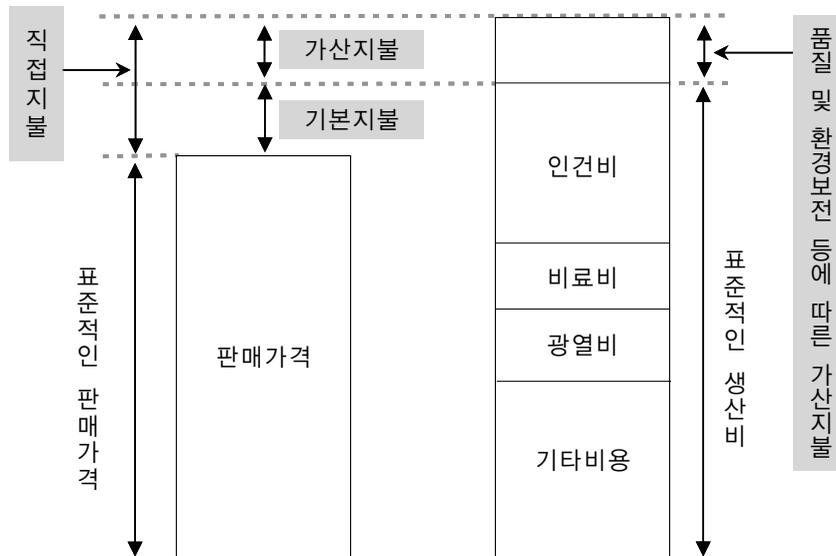
- 지역사회 유지와 식량생산 증대를 중시하여 종전의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서 ‘판매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대상품목은 시장개방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쌀, 맥류, 대두를 비롯하여,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품목 중에서 국내 생산능력을 가진 품목으로서 잡곡, 유지작물, 사료작물 등이다. 채소는 판매가격과 생산비 간의 차가 적기 때문에 제외한다.

3.3. 지불방식

-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차액을 기본으로 하여 지불하는 ‘기본지불’과 특정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지불하는 ‘가산지불’로 구성되며, 전국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한다.
- 기본지불의 지불단가는 품목별 ‘표준적인 생산비’와 ‘표준적인 판매가격’의 차액을 기본으로, 수급 동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표준적인 생산비’는 과거 수년간 평균 경영비와 가족노동비의 8할로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전기준가격’을 결정한다.
- ‘표준적인 판매가격’은 과거 수년간 평균으로 산정한다. ‘표준적인 생산비’와 ‘표준적인 판매가격’과의 차액이 ‘기본지불’이 되며, 기본지불은 고정지불로서 당년도 판매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지불된다. 즉 판매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상회해도 기본지불은 일종의 고정지불로서 매년 지불된다. 단지 ‘판매농가의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면적’은 매년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 이상을 근거로 하여 기본단가를 산정하되, ‘수요와 공급 동향을 고려하여 조정’을 거친다. 이것은 쌀 단가를 낮게 하고 전작작물 단가를 높게 설정하여 쌀 감산을 유도한다는 의도이다. 쌀 생산을 감소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증산함으로써 자급률을 향상할 수 있다.
- 기본지불에 추가하여 구조개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지불’을 실시한다.
 - ①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서 쌀을 대체하는 농산물생산이나 미분용·사료용·바이오연료용 쌀과 주식용 쌀 이외의 쌀을 생산하는 경우 ‘쌀 대체’ 가산지불을 실시한다.
 - ② 농산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품질향상’ 가산지불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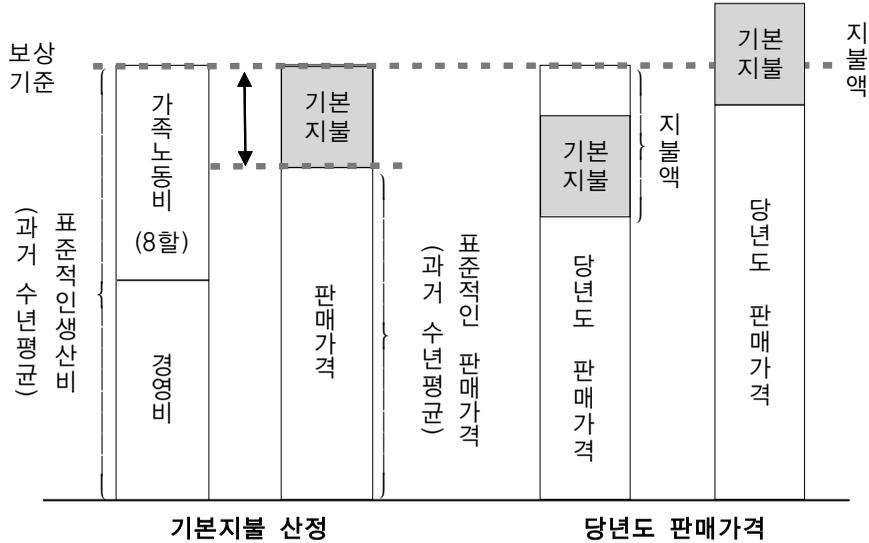
- ③ 환경부하를 경감하거나 환경편익을 증진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보전’ 가산지불을 실시한다.
 - ④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거래·직판 등의 판매활동, 미분 등의 형태나 농산물 가공 등의 판매활동에 대해서 ‘소득향상’ 가산지불을 실시한다.
 - ⑤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경우 ‘구조개선’ 가산지불을 실시한다. 가산지불은 가산지불 요건의 이행을 전제로 기본지불에 추가하여 지불된다.
- ‘소득보상’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낙농, 어업, 임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자민당 정권에 비해 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사회 유지, 자급률 향상, 농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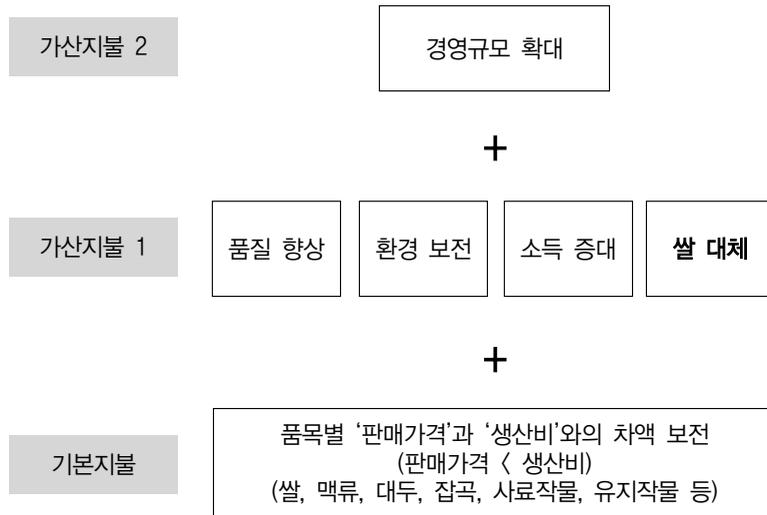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성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기본지불 】



자료 : 농림수산성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가산지불 】



자료 : 농림수산성

3.4. 소요 예산

- ‘소득보상’의 소요예산은 연간 1조엔(어업어촌·임업산촌 포함 1.4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예산이 1,700억엔이다. 이에 비하면 5배 이상의 예산이 직접지불로서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셈이다.
- 농림수산성은 2009년 10월 1일 ‘소득보상’의 구체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장관, 부장관, 정무관 등이 참석하여 정책입안을 결정하는 ‘농림수산 정무3역회의’ 직속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추진본부’(‘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 ‘추진본부’는 제도 설계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며, 2010년까지 조사 및 제도설계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당초 일정이다. 그러나 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3,447억엔의 예산을 확보하여 쌀을 대상으로 기본지불을 조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 농산어촌 6차산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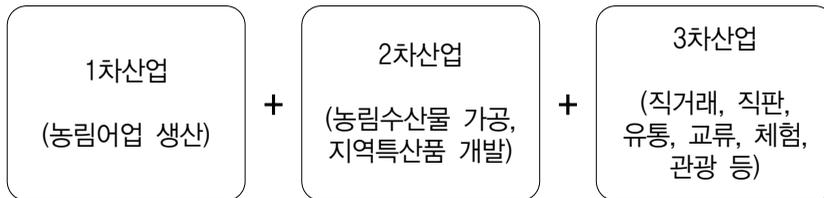
4.1. 6차산업화의 개념과 동향

-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소득보상’과 함께 민주당의 양대 정책수단이다. 이를 통하여 농림어업 활성화·농산어촌 재생을 실현하고, 식품의 안전·안심 확보와 자금률 향상, 지구온난화 방지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6차산업화란 농림어업이라는 1차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농림수산물 가공(2차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산업)을 농산어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농림어업은 종래 생산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그래서 2차산업의 식품가공은 식품제조업의 영역으로, 또 3차산업의 식품 유통, 농림어업·농산어촌관련 정보

및 서비스, 관광 등도 도시의 도소매업, 정보산업, 관광산업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

- 그 결과 농림어업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기회가 공업이나 도시로 이전되어 농림어업은 축소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농림어업 소득이나 농산어촌 고용과 무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농산어촌 현장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6차산업화의 다양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① 쌀 생산에 있어서 초 다수확 품종 도입, 친환경농업 실시,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한 생산으로의 질적인 전환
 - ② 쌀가루나 쌀 과자 등과 같은 쌀 가공, 직판장이나 택배 등에 의한 쌀 판매 활동
 - ③ 농림어업자와 농산어촌지역에서 타산업 종사자와의 협동활동
 - ④ 농산어촌 지역단위에서 일정 지역 전체의 활동
 - ⑤ 지역에 보다 많은 소득이 귀속하는 '지역자립경제권'(가칭) 확립 등

【 농산어촌 6차산업화 】



특정 농산어촌지역
 농림어업자(전업농, 고령자, 여성) 주도형,
 타산업사업자(식품제조업, 토건업, 관광업 등) 주도형,
 농산어촌 마을, 농협, 지자체 등

자료 : 김태곤 외, 2007. 12

- 이상 모두가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이라는 1차산업과 이와 관련한 2차산업·3차 산업을 융합하여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6차산업화다. 6차 산업화 추진은 '소득보상'의 유통·가공 활동 등과 같은 '소득향상' 가산지불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4.2. 농산어촌 6차산업화의 유형

- 6차산업화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농산어촌에서 새로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① 친환경이나 고품질 등 농림어업의 생산(1차산업) 자체의 질적인 전환
 - ② 농림어업축이 가공(2차산업)이나 판매(3차산업)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창업
 - ③ 가공이나 판매부문의 사업자가 농림어업에 진입하는 새로운 창업
 - ④ 농림어업과 2차산업·3차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농림어업자 주도형, 타산업사업자 주도형)
 - ⑤ 농산어촌의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인재'와 '사업'의 유기적인 결합 등
- 6차산업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산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의 장을 만들어 농산어촌의 재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하여 농산어촌과 지역의 중심 시가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경제권('지역자립경제권')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등이 6차산업화의 추진모체가 되어 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그 사업개혁을 추진한다.

4.3. 농산어촌 6차산업화의 추진 전략

- 농산어촌이 가진 자원을 발굴·개발하여 상품화, 사업화를 추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브랜드로 확립하여 지역에서 고용과 소득을 확보한다.
-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 지자체와 산업계가 연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동시에 재원과 권한의 지방 이양, 금융·세제·보조금·규제 등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 또한 농산어촌 6차산업화에 의한 인접 지역과의 분업·연대 등을 통하여 '지역자립 경제권'(가칭)을 확립하여 부가가치의 보다 많은 부분을 당해 지역에 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유통·가공 활동과 연계한 '소득향상' 가산지불을 활용하고, 무이자자금을 포함한 융자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한다.
- 또한 지구온난화대책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이를 통하여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도 6차산업화를 활용하고 있다.

5. 종합

- 민주당의 정권공약에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 감소에 대응한 어린이 육아수당,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과 같은 소득보상이 새로운 시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 농정분야에서는 판매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산어촌에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농산어촌 6차산업화’가 대표 정책이다. 정책결정 방식을 전환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직불제는 그동안 가격지지 폐지의 보상수단으로 주로 실시되었다. 간판 정책인 ‘호별소득보상제도’로서 소득보전을 비롯하여, 쌀 대체, 품질향상, 환경보전, 소득 증대, 구조개선 등을 도모하여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유지를 기대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시도이다.
- 소규모 농가도 포함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모확대(구조개혁) 일변도가 아니라 보다 많은 농가를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농림어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의 발휘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호별소득보상제도가 쌀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민주당은 소득문제와 지역사회 유지 등을 중시한 나머지 다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쌀농업 구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자민당 정권에서도 ‘농업의 6차산업화’, ‘농상공연대’ 등으로 추진되어 왔던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를 농산어촌·농림어업 전체로 확산하면서 더욱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 농림어업부문의 심각한 소득감소를 고려할 때 농산어촌에서 새로운 고용과 소득 창출은 긴급 과제이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중국도 ‘농업의 산업화경영’ 등 유사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소득감소가 심각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자민당 정권에서 각종 정책이 정부와 국회로 이원화되어 결정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불분명,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정치·관료·재계 유착 등의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은 정책결정을 정부로 일원화하여 투명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김태곤. 2009. 10.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외. 2007. 12.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農林水産省. 2009. 10. 1. “戸別所得補償制度推進本部の設置について”
農林水産省. 2009. 10. 15. “2010年農林水産豫算概算要求の概要”
民主黨. “民主黨政策集 INDEX 2009”, <http://www.dpi.jp>
民主黨. 2008. 12. 24. “民主黨農林水産政策大綱：農山漁村6次産業化ビジョン”
朝日新聞, 2009年 10月 7日

【특별 주제 2】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현황과 과제

이대섭·송주호·김정승*

1. 곡물 수입현황

- 우리나라의 곡물수입은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미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사료용 곡물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쌀은 1980년대 흉작으로 인한 일시적 수입을 제외하고는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으며,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최소시장접근 물량만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순수 곡물 수입국으로 밀, 옥수수, 대두의 수입량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1천 3백만 톤에서 1천 4백 7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1천 4백만 톤 이상을 수입하였다.
- 쌀을 포함한 곡물 자급율은 2008년 기준으로 26.2%이나, 밀, 옥수수, 대두의 자급율은 각각 0.35%, 0.90%, 7.1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밀 270만 톤, 옥수수 900만 톤, 대두 130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매년 주요 사료 및 식용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ldaeseob@krei.re.kr), 연구위원(jhsong@krei.re.kr), 연구원(jskim@krei.re.kr).

1.1. 품목별 수입현황

- 1983년 이후 밀의 자급도는 1% 이하로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식용 밀의 수요는 1979년 이후 1백만 톤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공용 수요는 1백만 톤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 하락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증가한 사료용 밀의 수요가 사료용 옥수수 수요로 대체됨에 따라 사료용 밀의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는 1992~2008년간 밀을 64개 국가로부터 약 6천만 톤을 수입하였으며, 그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으로부터 93.2%를 수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밀 수입 시장에서 상위 5개국은 최저 77.0% 최대 99.7%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밀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37.1%를 차지하였고, 호주는 25.3%, 그리고 캐나다 수입 비중은 17.5%를 차지하였다.
- 옥수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곡물 중 양적으로 최대 단일 품목이다. 수입되는 옥수수는 사료용과 가공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있고, 특히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는 85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1992~2008년간 50개국으로부터 약 1억 4천만 톤을 수입하였고, 그 중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의 98.6%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41.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되는 양이 증가하여 2000~2008년간 우리나라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11.9%(1992~1999년간 2.6%)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에는 브라질에서 1백 33만 톤, 아르헨티나에서 96만 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26.8%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 대두는 사료용과 가공용 수요가 많고, 수입량의 대부분이 이들 용도로 수입되고 있다. 대두는 밀, 옥수수에 비하여 국내 생산비중은 미미하나마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어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자급도는 2006, 2007년을 제외하고 7~10% 수준이다.

- 우리나라는 1992~2008년간 총 35개국에서 약 2천 3백만 톤의 대두를 수입하였다. 그 중 미국, 브라질,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량의 99.2%를 수입하여 지역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는 총 1천 820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8.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브라질산 대두가 16.5%를 점유하였다. 특히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대두의 양은 2001년부터 증가하여 2006년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양보다 많았다.

2. 우리나라 곡물수입 방식

2.1 수입방식 및 거래의 종류

- 현물가격을 구성하는 베이스와 선물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고정가격으로 제시받아 곡물을 구입하는 방법을 Flat 거래(fixed price에 의한 거래)라고 하고, 베이스 거래란 선물가격과 베이스를 분리하여 각각 유리한 기회에 확정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곡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 선물거래란 공인된 특정장소(선물거래소)에서 특정상품의 수량, 규격, 품질 등을 표준화하여 정해진 미래특정시점에 현재 형성된 시장가격(선물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인수·도하고 결제를 하기로 약정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한국 선물협회). 선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능은 헷징을 통한 가격위험의 회피이다. 즉 현물가격의 변동위험을 선물시장에서의 반대거래를 통해 손실과 이익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 선물거래와 베이스 거래는 사실상 다른 개념이다. 즉 선물거래는 단순히 헷징(Hedging)을 통해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베이스 거래는 선물가격변동을 전제로 베이스 변동을 함께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직접구매란 수요자가 직접 수출국 현지에 진출하여 구입하는 것이며, 일본의 젠노처럼 미국시장에 수출용 엘리베이터와 집하창고 등을 소유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베이스스 거래가 필수적이다. 직접구매하려면 현지에 유통시설 등이 구축되고, 대량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공개경쟁입찰이란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등급, 구매물량, 도착시기 등을 공개적으로 공고하면, 그에 따라 여러 공급사들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응찰가격을 제시하고 주로 최저가를 제시한 공급사에게 낙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경쟁입찰은 입찰 참여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 공급사와 차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계약구매란 1회성 구매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 C&F(Cost & Freight)계약은 무역 거래 조건의 하나로, 본선(本船)에 선적하기까지의 가격에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합산하는 가격 조건을 의미하며, CIF(Cost, Insurance, Freight)에서 해상운송 보험료만을 뺀 것이다. 즉, 수출지에서의 운송 및 선적 등 국내입항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다. FOB(Free on Board)는 수출항에서의 본선에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2.2. 곡물가격 결정구조

- 국제 곡물가격의 최종가격결정은 생산자가 엘리베이터에 곡물을 판매하고 엘리베이터가 즉석에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hedge거래를 했을 때에 발생한 로컬 베이스스로부터 시작된다.
- 이후의 로컬 베이스스에 수송·보관 코스트와 마진을 더 얹어 베이스스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리버 엘리베이터는 바지선·핸들링·보관 코스트와

마진을 더 얹어서 뉴올리언즈 항에 있는 수출 엘리베이터에 CIFNOLA¹⁾ 베이스스로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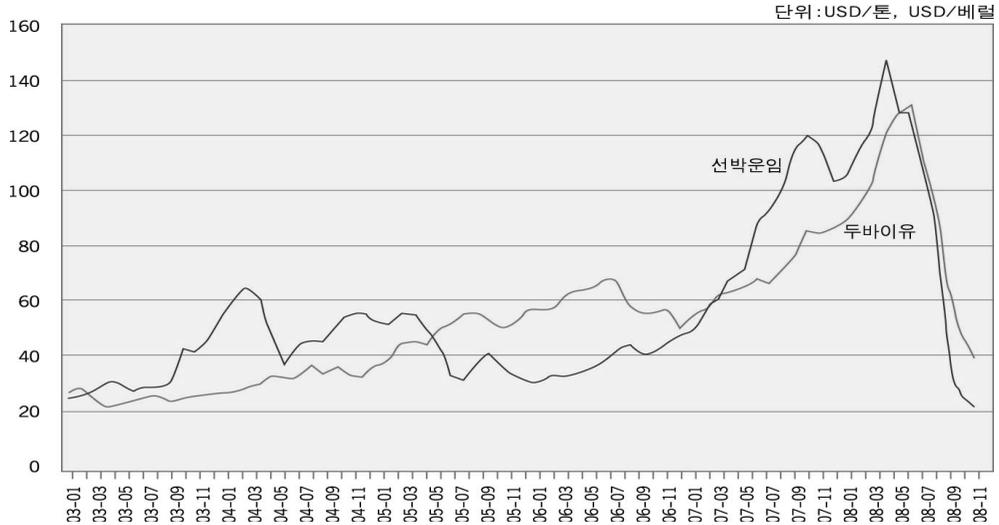
- 그리고 수출 엘리베이터는 핸들링·보관코스트와 마진을 더 얹어 FOB 베이스스(통상 FOB 프리미엄으로 부른다)로, 다시 해상운임을 보태서 C&F 베이스스(통상 C&F 프리미엄으로 부른다)로 수입업자에게 판다.
- 로컬 베이스스 이외의 베이스스 거래는 최종적으로 특정시기의 시카고선물가격을 이용해서 최종확정가격으로 변환된다. 최종실수요자가 가격 실행 지시(Pricing order)를 내고, 베이스스 거래에 관계된 당사자 모두에게 거래의 순서를 거슬러 올라가 신속하게 전달되어 시카고 선물시장에 헤지(hedge)팔기를 하고 있었던 거래당사자(통상은 리버·터미널 엘리베이터)는 그것을 즉각 다시 매입하여 차액금 결제를 한다. 다시 매입한 시카고 선물 가격에 각 단계에서 미리 계약되어 있는 베이스스를 더해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 곡물 수입가격은 선물가격과 베이스스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선물가격과 베이스스를 합해 수입가격을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을 Flat 거래라고 하며, 선물가격과 베이스스를 별도로 각각 확정하는 것을 베이스스 거래라고 한다. 베이스스는 특정지역의 현물가격과 특정 결제월의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베이스스 = 현물가격 - 선물가격 으로 정의된다.

2.3.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 유통코스트의 상승에 가장 영향을 가져온 것은 해상운임의 상승이다. 미국의 경우 2003~2008년의 기간 중 국제 기준운임(미국 → 한국)은 약 400% 급등하였다. 이 해상운임은 또 변동이 심하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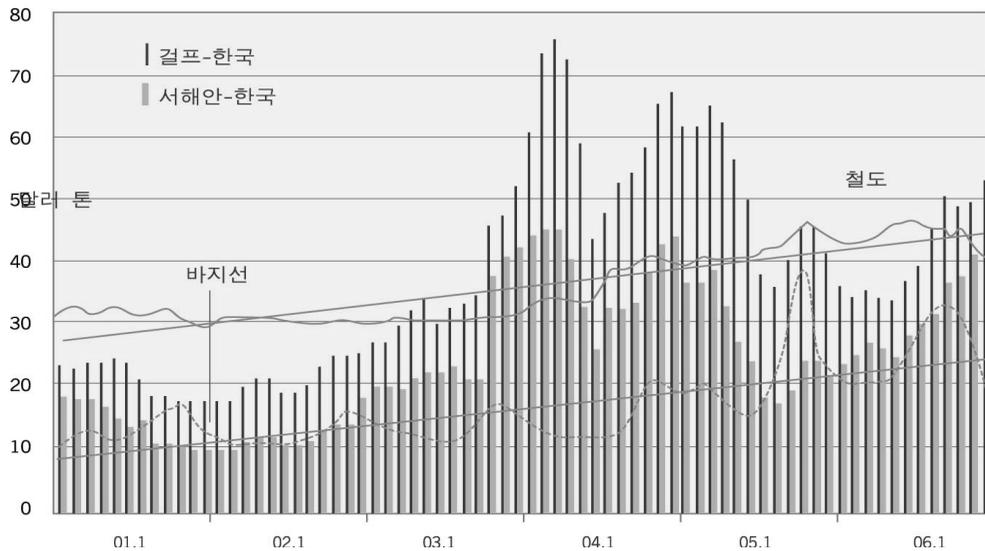
1) CIFNOLA는 루이지애나주(LA) 뉴올리언즈(NO)항의 CIF가격을 의미한다.

【 해상 운임과 두바이유 현물가(2003. 1~2008. 12) 】



- 해상운임의 등락은 서해안보다 걸프루트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는 걸프루트가 서해안(2주일)에 비해 한국까지 2배 이상인 약 3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바지선, 철도 및 해상운임 추이 】



자료: USDA/AMS, BNSF社,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ltic Exchange

- 해상운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 바지선운임과 철도운임의 상승도 유통비 상승의 주요요인의 하나이다. 바지선 운임의 경우 2003년까지는 수확 후에 가격이 상승하고 초봄 이후에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4년 가을부터의 상승한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높은 상태에 머물렀으며, 2005년 가을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 가을 미 남부를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폭등한 후, 2004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2006년 가을까지 비슷한 운임을 유지하였다.
- 바지선업계는 운임자유화 후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친 장기적인 불황으로 운임의 지속적인 저가, 과점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8개사만 남아 있다²⁾. 그 때문에 새로운 바지선 건조가 전무하여 낡은 거룻배가 운항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호경기에 의한 수송수요의 확대, 특히 곡물의 흐름과는 반대인 New Orleans항에서 상류로 향하는 비료와 철광 등 화물의 수송증대에 의해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어, 2004년 가을의 집중 수요기 이후, 운임의 급격한 급등을 초래했다. 또한 2005년 8월 New Orleans항을 습격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바지선 업계에 매우 큰 손실을 입혀 운임 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 철도운임도 2003년까지는 안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수송능력의 부족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곡물수송 증가에 대응한 철도회사의 신규 투자 등에 의해 2004년 이후 몇 번에 걸쳐 인상되었다. 또한 연료가격의 상승과 함께 연료 부가금 비율이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철도업계에서는 현재 CLASS I로 불리는 대규모 철도회사 7개사 중, 수출을 목적으로 서해안으로의 곡물을 수송 하고 있는 회사는 Union Pacific사(UP)와 BNSF사 2개 기업뿐이다.

2.4 품목별 곡물수입 방식

- 품목별 우리나라 수입방식을 살펴보면, 밀의 경우 지역별로 대규모 회원사가 중심이 되어 월별로 각 회원사의 밀 수입물량을 취합한 후 공동으로 용선하여

2) 그 중 곡물메이저의 Cargill과 ADM이 1개사씩을 보유하고 있다.

밀을 구매하고 일부 회원사는 단독으로 용선한 후 밀을 구매하지만 FOB 가격으로 Flat거래가 주를 이룬다.

- 옥수수의 구입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료회사가 회원사로 되어 있는 사료협회를 통한 공동구매와 농협사료의 단독 구매가 있다. 최근 농협사료에서 베이스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Flat거래가 주를 이룬다.
- 식용대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분배를 하고,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대두는 대두가공협회에서 수입추천권을 갖고 대두가공 회사에 선착순 배분을 하며 각 회사가 직접 수입을 한다. 공개 경쟁입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C&F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FOB로 수입을 한다. CJ의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해 선물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Flat 거래이다. 이 방식은 인도일과 비교하여 평균 3개월 전에 약 5만 톤~5만 5천 톤 수준의 대량 곡물을 C&F Flat 가격으로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된 곡물이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시 국제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과제

- 우리나라의 곡물수입은 대부분 Flat 거래를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선물이나 베이스 거래에 관한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하고, 또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베이스거래는 곡물가격의 변동추이를 보아가며 선물을 매입함으로써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스 자료를 분석하여 현물거래에 이용한다면 Flat 거래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일본의 경우 곡물수입자들은 주로 베이스스 구매를 한다. 즉 미쓰이, 미쓰비시, 이토추 등 종합상사와 일본 젠노 중심의 일본무역회사 그룹이 C&F Basis를 제시하면 개별 수요자들은 이 베이스스를 구매한 후, 곡물은 나중에 미국 선물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주문을 통해 구매한다.
- 일본 무역회사들 중 일부는 미국에 자사 소유 싸이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일본은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대부분 개별실수요자별로 구매를 한다.
-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Flat 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 방식은 앞에서도 인도일과 비교하여 평균 3개월 전에 약 5만 톤-5만 5천 톤 수준의 대량 곡물을 C&F Flat 가격으로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된 곡물이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시 국제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가격변동은 수입곡물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 폭이 큰 시점에서는 위험요소가 증가하여 그 파급영향은 대부분 국내 시장으로 흡수되어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자 및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Basis 거래를 활성화하여 단기적으로는 선물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곡물메이저의 의존도를 감소하기 위해 직접구매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다.
 - 1) C&F Flat 가격 중심의 거래에서 Basis 거래와 선물거래로 구분하여 위험요소를 분산 시켜야 한다. C&F Flat 거래는 곡물수입을 위한 거래 자체를 단순화시키고 거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제시장에서의 위험요소를 회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와 수출항 엘리베이터에서 국내항까지 운반되는 곡물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 Basis로 분리(가능하

다면 해상운임도 별도로)하여 거래를 한다면 위험요소를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베이스스 거래를 위해서는 선물시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선물가격은 미래에 대한 현물가격의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어느 특정일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선도 거래(Forward Transaction)로서 향후 가격 하락시에는 그 위험을 전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곡물 가격자체를 매일 매일 선물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가며 가격결정을 할 경우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 3) 직접구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 Basis 거래와 선물시장 활용의 곡물 수입방식 만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영향을 100% 회피할 수는 없다. 선물가격은 국제 곡물수급 여건, 투기자금 유입정도, 주요수출국의 곡물정책 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물 구매는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곡물 확보와 국내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직접구매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구매에서부터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까지의 일괄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곡물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수입은 최종수요자인 사료 및 가공업체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정부는 TRQ관리만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관리 및 보관 하여야할 중요한 자료 및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 수급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주요 민간 기업들과 협의 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